

# 목차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	1
질의응답 .....	16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 선교 .....	22
질의응답 .....	36
다같이 산다- 다게스탄에는 어떻게 다양한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모여 살게 되었나? .....	45
질의응답 .....	58
유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이스라엘·중동 정책의 이해 .....	65
질의응답 .....	76

#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이상민(글로벌 브릿지 연구소 편집자문위원)

## I. 머리말

지난 1 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전 세계가 충격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2 차 세계대전 후 구축하고 수호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전면 비판하며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자유무역·다자주의·민주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 때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원칙에 역행하는 대외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본 글은 트럼프 2 기 행정부가 비판하며 해체하려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어떤 것인지, 트럼프 2 기 행정부가 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지, 이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어떤 것인지 다뤄보려고 한다.

## II. 자유주의 국제질서

### 1. 개념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자유주의(Liberalism)'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Realism)와 함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체제가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 상태(anarchy)이지만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를 중시하는데 국제기구와 국제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자유무역, 과학·기술 발달 등을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부와 번영이 증진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박재영, 2016). 반면, 현실주의는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국가들은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며 갈등과 경쟁을 하고 공동의 이익이 있어도 협력하지 못한다고 본다. 국가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냉철한 손익계산서에 따라 이익 극대화를 시도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본다(박재영, 2016).

## 2. 특징

이런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d.).

### 1) 다자주의 중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에 협력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한다. 국가들이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2) 규범·규칙 기반(Rule-based)

질서 추구 국가들이 힘보다 규칙, 조약, 협정, 국제법, 관습 등의 약속을 지키고 법적인 틀 안에서 행동함으로 국제질서가 안정된다고 본다.

### 3) 자유무역 및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국가 간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간에 전쟁보다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 4) 민주주의 확산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보고 민주국가 간에는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확산을 강조한다. (민주평화론 (Doyle, 1983)<sup>1</sup>).

---

<sup>1</sup> 냉전 종식과 함께 동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관심을 받음.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논리적 기반이 됨.

## 5) 미국의 '선의의 패권'(Benign hegemon) 리더십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해치는 국가들은 응징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국가들에게는 안보, 경제 등에서 필요한 공공재 (public goods)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선의의 패권(benign hegemon)'으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Kindleberger, 1973).

## 3. 역사적 배경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냉전 시작과 함께 소련과 대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 일본 등 이른바 '자유로운 절반' (a free half) (Acheson, 1969) 을 대상으로 구축한 국제질서다 (Allison, 2018).

### 1) 브레튼우즈 체제

미국은 2 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라는 국제통화체제를 출범시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결정된 이 체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 즉,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로 지정하고 다른 모든 나라 통화를 이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를 확립했다. 이는 전쟁 직후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를 안정화하며 국제무역 확대를 촉진했다. 또한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설립했다. 서유럽, 일본, 한국 등은 이 기구에서 차관을 받아 발전소·도로·항만 등 인프라 산업을 복구했고 이후 산업기반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 미국은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전후 국가 간 관세 인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고 GATT는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되었다.

### 2)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국제연합

미국은 전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을 출범시키고 민주주의·인권·법치를 국제규범으로 확산시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정치·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1949년 NATO를 창설해 소련 견제를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했고, 일본(1951년)·호주(1951년)·한국(1953년)과 양자 안보동맹을 체결했다. 앞서 1945년 UN 설립을 주도하며 IMF, IBRD 그리고 GATT와 같은 다자주의에 기초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법과 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 질서'(rule-based order)를 설계했다. 미국은 1948년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라는 유럽부흥계획을 발표해 약 130 억 달러(현재 가치 약 1,000 억 달러)를 16개 유럽국가에 지원했는데

이는 당시 서유럽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름 대립 구도의 냉전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 인권·법치·민주주의를 국제규범으로 확산시키려 했다. 그 일환으로 1942년 미국의 소리 방송 (Voice of America), 1949년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을 설립해 소련 및 동유럽을 향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외부 정보유입 활동을 했다. 1961년 국제개발처(USAID)를 설립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와 개발 지원을 시작했다.

### 3)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세계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로부터 승리했다는 평가(Fukuyama, 1992)<sup>2</sup>와 함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로 세계교역이 급성장했다.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up>3</sup>이 형성되어 선진국은 소비하고 개발도상국은 제조하는 구조가 이뤄졌고,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 투자하며 저임금 국가로 생산을 이전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을 시도했다(Allison, 2018).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 인종청소를 막기 위해 유고슬라비아를 공습했고,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동 민주화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sup>4</sup>'를 밝히며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시작된 '아랍의 봄'민주화 혁명이 리비아로 확산되며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알 카다피 정권이 무력으로 진압하자 카다피 정권을 공습했다.

---

<sup>2</sup> 자유민주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승리함으로써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할 이데올로기가 소멸했다는 의미의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 선언.

<sup>3</sup> 글로벌 공급망은 한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 걸쳐 연결된 네트워크. 특정 국가는 원재료, 또 다른 국가는 부품 가공, 다른 국가는 최종 조립, 마지막으로 소비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로, 세계화의 상징이자 현대 국제경제의 핵심구조.

<sup>4</sup> 부시 대통령은 소련 반체제 인사 유대인 나탄 샤란스키(Natan Sharansky)의 『The Case for Democracy』를 근간으로 부시 독트린을 천명했다. 샤란스키는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보다 외교와 협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세계의 민주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신보수주의(네오콘)와 일맥상통.

#### 4. 도전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재편(revise)하려는 '수정주의 세력' (Revisionist powers)의 부상,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확산 실패와 후퇴, 비자유주의 부상, 민족주의 강화,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 등의 도전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Liblett, 2017).

##### 1) 수정주의 세력의 부상 (Mearsheimer, 2001)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White House, 2017).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이란과 북한도 수정주의 세력으로 이 4 개국이 '수정주의 세력의 축 (axis of revisionist powers)'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Mead, 2025) 러시아는 다른 국가의 영토 고권을 무시하고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합병한데 이어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중국은 중국판 유라시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전략<sup>5</sup>'을 실시하고 남중국해 군사화, 대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지역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Mead, 2014). 이란과 북한은 국제 핵 비확산체제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군사지원하고 있다.

##### 2) 민주주의의 확산 실패와 후퇴

미국이 민주화를 목표로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아프가니스탄(2001년)·이라크(2003년)·리비아(2011년)에서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했고,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중동 민주화로 튀니지·이집트·리비아·예멘·시리아는 모두 혼란과 내전을 거치면서 권위주의 회귀로 이어졌다. 미국과 서유럽은 소련 붕괴 후 중국과 러시아를 WTO 등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키면 점차 민주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를 가져오고, 시장이 개방되어 중산층이 성장하면 민주주의 요구가 확대되고 또 국제제도 참여를 통해 규범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responsible stakeholder)'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Zoellick, 2005). 중국은 2001년,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재집권 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심화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후 권력을 집중하며 2018년에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했다.

---

<sup>5</sup>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2013년 시진핑이 제안한 대외 전략으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협력 프로젝트.

미국 비영리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매년 전세계 국가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적 자유를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전 세계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19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헝가리, 폴란드, 튜르키예, 인도, 필리핀, 브라질, 튜니지, 에티오피아 등에서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가 관찰되고 있다(Freedom House, 2024). 민주주의 후퇴는 민주주의 제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으로 특히, 선거제도는 유지되지만 법치, 언론, 시민사회, 권력 분립이 무너지는 형태를 말한다 (Levitsky & Ziblatt, 2018). 이를 두고 '비자유주의'(illiberalism)라고 한다.

### 3) 비자유주의 부상

헝가리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2010년 집권 이후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집권 구조를 강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며 언론 통제 및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다<sup>6</sup>. 폴란드에서는 집권당(PiS 당)이 2015년 집권 후 사법개혁 명목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튜르키예에서는 에르도안 총리가 2003년 집권 이후 언론·사법 독립을 약화하고 2017년 대통령제 개헌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튜니지는 아랍의 봄(2011) 이후 민주주의 전환의 성공 사례로 주목됐으나 2021년 사이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포퓰리즘(Populism)은 비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념으로 사회를 선하고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으로 설명한다(Mudde & Rovira Kaltwasser, 2017).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다고 주장하며 제도적 견제(사법부·언론·의회)를 무시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포퓰리즘 지도자의 전형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공격한다고 본다 (Levitsky & Ziblatt, 2018). 비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후퇴와 제도·규범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흔드는 도전으로 평가된다.

### 4) 민족주의 강화

영국은 2016년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브렉시트·Brexit)<sup>7</sup>. 영국이 EU를 탈퇴한 주된 이유는 EU에서 벗어나 영국 스스로 결정하자는 주권 회복이었다(Take Back Control - 당시 구호)(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2).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모델인 EU라는 초국가적 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sup>6</sup> 오르반 총리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있고, 헝가리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비자유주의 국가'(illiberal state)를 지향할 것이라고 했다.

<sup>7</sup>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

자국 주권을 우선하는 민족주의(민족국가)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직면할 벽이라는 주장(Mearsheimer, 2017)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였다. 앞서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EU는 난민을 회원국들이 나눠서 수용하자고 제안했지만 폴란드·체코 등은 거부했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난민을 반대하는 극우민족주의 정당이 부상했다. 아울러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중국몽)을 부르짖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민족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다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illiberal nationalism)로 평가되고 있다 (김성한, 2021).

#### 5) 미국인들의 피로감

미국이 '세계 경찰국'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뚜렷해졌다(Pew Research Center, 2013).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의 관심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쓸리게 됐고 국제질서 유지 비용 (군사개입, 해외원조 등)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 특히, 2001년부터 시작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컸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 폭정은 축출했지만 '자유민주 이라크'를 만드는 것은 실패했고, 2021년 미군 철수로 종결된 20년 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탈레반 복귀로 끝나면서 그동안 수천명의 미군을 잃고 수조 달러를 쏟아 부은 결과가 이거냐며 이제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자를 하지 말자는 정서가 미국인 사이에 컸다 (인남식, 2025).

### III.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 1. 자유주의 국제질서 비판

이런 가운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 MAGA)"를 외치며 미국 기성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해에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는 집권 1기, 2기 모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 이는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구축하고 수호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며 이를 해체하고 힘과 거래(deal)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Brands, 2025).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1월 당시 국무장관 후보자로 참석한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2025). 루비오 후보는 당시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험한 망상'이고 지금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자유무역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미국 중산층이 붕괴되고, 미국의 산업기반이 약화됐으며 공급망(Supply Chain)이 경쟁국으로 이전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로운 인구이동으로 미국과 세계 곳곳에 이민·난민 위기가 심화됐고, 중국·러시아·이란·북한(수정주의 세력)이 이 질서를 악용해 자국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혜택만 취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해킹·절도'로 미국의 번영을 빼앗아 수퍼 파워로 부상했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와 테러 지원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자유세계를 다시 창조해야 하고 이는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미국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더 번영하게' 하는 미국 국익 우선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신봉하는 미국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조셉 나이, 존 아이켄베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더 파괴하는 진짜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Keohane & Nye, 2025)(조선일보, 2025a). 반면, 미국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존 미어샤이머, 스티븐 월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직면한 구조적인 도전들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 2.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

트럼프 2 기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은 자유무역·다자주의·민주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하나하나 역행하는 것이다.

### 1)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무역체제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미국 산업(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 월 2 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10% 기본 관세를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했다. 여기에 국가별 무역 불균형·시장 장벽 정도에 따라 추가 관세인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11%~50%까지 차등 적용했다(평균 15%)(조선일보,

28b). 관세는 단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은 안보·투자·군사 분야에서 양보하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sup>8</sup>.

## 2) 다자주의 약화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기구들이 미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미국의 국익을 해한다며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 월 재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으며 UN 인권이사회에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해당 조약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 고위 관료를 처벌하려 한다며 ICC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로 국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 3)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배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민주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김성한, 2021). 과거 미국이 중동 민주화 등을 추진한 것은 미국의 국익보다 다른 나라 체제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해외원조해온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는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외부정보유입 활동을 해온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자유유럽방송(RFE) 등을 사실상 폐쇄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진흥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온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2026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세계 198 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왔는데 트럼프 2 기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는 지난해보다 6 개월 늦은 지난 8 월 12 일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예년에 비해 분량이 절반 이상 줄었고, 북한 인권 상황의 경우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 내용이 대폭 줄었다 (King, 2025).

## 4) 국제문제 선별적 개입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있다(최우선, 2024)(김성한, 2021). 역외균형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찰' 역할을 하지 말고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등 전략적 요충지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지역 강국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은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역외(offshore) 균형자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확산·정권 교체와 같은 개입주의는 피하면서

---

<sup>8</sup> 한국-미국 2025년 7 월 30 일 합의: 3 천 500 억 달러 대미 투자, 1 천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earsheimer & Walt, 201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 월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는 약속을 이끌어냈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미군 비용을 증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파견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의 중심에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 News, 2025). 동맹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지역 강국이 안보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Mearsheimer, 2001). 미국이 지난 6 월 단행한 이란 핵시설 공습은 직접 점령하고 장기 개입하는 것이 아닌 공중·정밀 타격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어하면서 이란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습 이후 미국은 유럽(EU 3 국)이 이란과의 외교협상을 복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역외균형의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수정주의 세력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다른 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 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간 외교정상화 조약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한 것처럼 집권 2 기에도 콩고와 르완다 평화협정, 인도와 파키스탄 휴전,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충돌 중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처럼 평화 중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 IV. 트럼프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

이러한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힘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며 국제기구와 국제제도 및 규범을 경시하고, 관세를 통한 힘을 활용해 보호무역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수정주의 세력들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역외균형자로 유럽·동북아시아·중동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 선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격적 신현실주의<sup>9</sup>'(offensive neorealism)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강량, 2019)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을 지향하는 현상유지적 국가만을 상정한 기존의 방어적 신현실주의와 다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성(anarchy)이 국가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들이 적대적인

---

<sup>9</sup> 전통적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에 갈등의 원인을 두지만,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의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 극대화를 공격적으로 추구하며 현상을 변경해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고 본다. 한 국가가 지역적 패권국(regional hegemon)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외 균형자'로 행동하게 된다 (Walt, 2011).

## V. 트럼프 2 기 미국의 중동 정책

트럼프 2 기 미국의 중동정책의 특징은 적극적인 개입이다 (Mead, 2025). 적극적인 개입이란 과거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중동민주화를 위해 미군을 장기 주둔시켰던 '신보수주의(네오콘)<sup>10</sup>' 접근이 아니라 지역 강국을 통해 다른 패권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주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 신현실주의' 접근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중동 내 지역 강국은 현재 이스라엘, 튀르키예, 사우디 아라비아로 보인다 (The Washington Post, 2025).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후 첫 해외방문으로 지난 5 월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를 방문해 각국에서 수천억 달러의 경제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는 당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리아 신임 대통령인 아흐메드 알-샤라를 처음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미국의 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하며 이스라엘과의 외교정상화를 권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 월부터 이란과 5 차례 핵협상을 했고 지난 6 월에는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거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결과 가자 지구 복구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 VI. 맺음말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냉전 후 지난 80 년동안 구축하고 수호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해체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과거 '세계경찰국'으로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하던 '선의의 패권' 미국이 지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쟁기기 위해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동맹국 불문하고 세계와 강압적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

<sup>10</sup> 네오콘(Neoconservatism): 미국 보수운동의 한 지류로, 조지 W. 부시 시기 득세. 민주주의와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며 군사력 사용에도 적극적.

트럼프 1 기 후 취임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중시로 복귀했던 것처럼 재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미국은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도전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새 전략으로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References

- Kang, R. (2019, April). Theoretical background of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elective international engagem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Policy Brief*, 38.
- Kim, S. (2021, January). Evalu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Diplomacy*, 136.
- Park, J. (2016). *International Politics Paradigms* (4th ed.). Bobmunsa.
- In Nam-sik, ROK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2025, July 1). *IFANS Talks No. 31*.
- Choi, U. (2024, December 24). Changes in U.S. foreign strateg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Acheson, D. (1969).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W. W. Norton.
- Allison, G. (2018, July/August). The myth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 AP News. (2025, August 19). US troops won't be sent to help defend Ukraine, Trump says. Associated Press.
- Brands, H. (2025, March/April). The renegade order: How Trump wields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 Brands, H. (2025, July 8). Trump is opening a new chapter in U.S. foreign polic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ttps://www.aei.org>
- Chosun Ilbo*. (2025, July 15). John Ikenberry: "Korea should not split its balance 50–50 between the U.S. and China."
- Chosun Ilbo*. (2025, August 4). "Tariff war, by the whims of Trump?"
- Davis, K., Jr. (2025, July 24). 6 months in, Trump's unorthodox foreign policy is rewriting the rules. *The Hill*.
- Doyle, M. W.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4), 323–353.
- Freedom House. (2024). *Freedom in the World 2024: Democracy Scores*. <https://freedomhouse.org>
- Fukuyama, F.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 Ikenberry, G. J. (2011, May/June).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Internationalism after America.

*Foreign Affairs.*

KDI Economic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2022, December). Brexit and the post-Brexit UK and EU.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eohane, R. O., & Nye, J. S., Jr. (2025, July/August). The end of the long American century: Trump and the sources of U.S. power. *Foreign Affairs*.

Kindleberger, C.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ing, R. (2025, August 22). State Department annual human rights report for 2024 – Six months late and significantly cut back. *38 North*.

Levitsky, S., & Ziblatt, D. (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Liblett, R. (2017, January/February). Liberalism in retreat: The demise of a dream. *Foreign Affairs*.

Lissner, R., & Rapp-Hooper, M. (2025, July/August). Absent at the creation? *Foreign Affairs*.

Magomedov, R. (1961). *History of Dagestan*. Dagestan Pedagogical University Press.

Mead, W. R. (2014, May/June).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ead, W. R. (2025, June 2). The war of revision is coming. *Wall Street Journal*.

Mead, W. R. (2025, June 30). Trump seeks to remake the world. *Wall Street Journal*.

Mead, W. R. (2025, July 28). Trump's trade deal triumphs. *Wall Street Journal*.

Mearsheimer, J.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Mearsheimer, J. J. (2017). Nationalism and the nation-state in structural realism. In D. Boucher, A. McKeown, & I. Hall (Eds.), *The Palgrave Macmillan History of International Thought* (pp. 139–175). Palgrave Macmillan. [https://doi.org/10.1007/978-3-319-48243-8\\_6](https://doi.org/10.1007/978-3-319-48243-8_6)

Mearsheimer, J. J., & Walt, S. M. (2016, May/June).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

Mudde, C., & Rovira Kaltwasser, C.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ye, J. S., Jr. (2017, January/February). Will the liberal order survive? The history of an idea. *Foreign Affairs*.

Pew Research Center. (2013, May 1). Public sees U.S. power declining as support for global engagement slips. <https://www.pewresearch.org>

Polinsky, M. (Ed.). (2021).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s of the Caucasus*. Oxford University Press.

Stimson Center. (n.d.). Introduction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erekhov, P. (1997). *Peoples of Dagestan*. Russian Academy of Sciences.

*Wall Street Journal*. (2025, July 22). The strike on Iran was Jacksonian.

*Wall Street Journal*. (2025, July 29). Trump's new trade order is fragile.

*Wall Street Journal*. (2025, August 3). China is choking supply of critical minerals to Western defense companies.

*Wall Street Journal*. (2025, August 6). Trump pledged to bring back manufacturing. The sector is sputtering.

Walt, S. M. (2011, November 2). Offshore balancing: An idea whose time has come.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

*Washington Post*. (2025, May 14). Trump's Middle East trip makes it a big week for Turkey's Erdogan.

Yakubova, N. (2023). *Great Dagestan*. Bombora.

Zoellick, R. B. (2005, September 21).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U.S. Department of State. <https://2001-2009.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 질의응답

### 질문 1.

글을 읽어보니 트럼프 2 기 미국의 대외정책의 내용은 트럼프 인물의 특징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 변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분위기인지요?

### 답변 1.

트럼프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소속 정당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 여론조사(갤럽)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미국 시민들은 90% 이상 동의 및 지지하고, 민주당 소속 시민들은 3%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은 33% 정도 지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당시 44%에서 지난 8 월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것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지금의 대외정책을 유권자들이 지지한 것이라며 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지금 현대 엘지 공장의 475 명 체포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이것도 미국 이익 우선주의 자국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보는 것인지요?

### 답변 2.

이번 사건은 현재 미국에서 강력하게 진행 중인 불법체류자 단속의 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 여명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불법이라 불법체류자로 단속 대상이 된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눈감아왔는데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이민정서가 커졌고 이를 고치겠다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하에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이민자들에게 잘 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 3.**

개인적으로도 민주주의 가치추구를 위한 기준 정책의 한계가 트럼프 정부 2 기 출범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1 기 트럼프 정책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시기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쳤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준 정책으로 회귀한 결과로 결국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적, 경제적 여파가 있었어요.

이미 코로나 때 WHO 의 기능상실에 대해 경험을 했고, WTO 또한 중국의 특혜를 제재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듯 다자주의가 얼마나 맹점이 있었는지. 이 구조가 수정주의 국가들에 어떻게 휘둘리는지도 여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인권의 영역으로 제시해주신 VOA 를 비롯한 방송국과 NED 의 지원철회도 그 기관들의 실용성 측면을 같이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냉전시대때 사용되던 기관들이 지금 현시대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요.

아메리칸 퍼스트가 트럼프 2 기 측면에선 정책목표가 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현 상황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바탕에는 미국이 선의의 패권리더십을 가지고 간다가 깔려 있어요. 이 말은 곧 '미국 없으면 안 된다'인데 미국이 없어지게 생긴 판이 된 거죠.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로서는 건재할지 몰라도 민주주의 등대 역할로서의 리더십에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순위 정책도 호소력이 생긴 것이고요.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트럼프 2 기의 정책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해체하거나 배제한다기보다 보완 또는 재편한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요?

### **답변 3.**

트럼프 2 기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 가치 확산은 후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추구했던 전세계 민주주의 가치 확산이 미국에 직접적, 단기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이 트럼프 집권 2 기에 해체되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예가 말씀하신 미국의 방송(VOA), NED 지원 철회 등입니다. VOA 는 냉전 당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중동, 북한 등 민주주의 가치가 필요한 곳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NE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VOA, 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자 미 의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를 볼 때 트럼프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외정책 목표로 이를 보완하고 재편하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질문 4.**

트럼프 2 기의 중동정책은 지역 강국을 통해 다른 패권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주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 신현실주의라고 하셨고 중동 내 지역 강국으로 이스라엘, 튜르키예, 사우디 아라비아를 꼽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튜르키예와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답변 4.**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 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리아 신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에르도안 튜르키예 총리의 전화를 받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정책에서 튜르키예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5 월 이스탄불에서 양측 중간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담이 열렸습니다. 튜르키예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튜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도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사실 미국 행정부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포기(?)한 적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에서 말씀하신 브레튼우즈 체제가 미국을 둘러싼 여러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이미 1971년에 붕괴되었고, 닉슨 대통령의 관세 인상, 이후 이루어진 플라자합의 등도 미국이 항상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추구했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정책을 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전의 닉슨과 레이건 등의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답변 5.**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일관되게 지켜온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현실주의적·자국우선적 정책을 써왔습니다. 말씀하신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브레튼우즈 붕괴), 1985년 플라자 합의, 레이건 시절의 무역 압력 등이 대표적이죠. 그럼에도 트럼프 2 기의 정책과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닉슨과 레이건의 정책은 부분적, 일시적 조정이었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 기 정책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닉슨과 레이건은 현실주의적 대응을 하면서도 동맹과 다자기구를 유지했는데 트럼프는 다자기구에서 탈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맹과도 조건부 거래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레이건은 소련과의 냉전 중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확산보다 철저한 거래와 국익 우선을 내세우고 있죠. 이런 게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6.

그럼 레이건 시대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대중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만한 가치였다면, 지금은 글에서 언급하신 여러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열망이 있을만큼 미국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그런 미국 대중들의 열망의 결과고요.

## 답변 6.

얼마 전 미국 성인 대상 갤럽여론조사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 민주주의 증진과 해외원조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미국인들 사이에 다른 국가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배제하는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들(MAGA 운동 지지자)의 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기성 공화당 사람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당선됐는데요 이 지역은 제조업이 붕괴되어 '러스트 벨트'라고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제조업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면서 표를 얻었고(MAGA 지지자) 지금은 관세를 전세계에 부과하며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라고 압박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 대중들 중 MAGA 운동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의 약자입니다.

## 질문 7.

역사 속에서 인간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확산시킨 것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며, 최근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배경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퇴조, 민족주의의 강화, 그리고 기존 국제질서를 흔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부상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다자주의의 약화와 국제기구 영향력의 축소 및 상실, 인권 문제의 후퇴, 그리고 국제 경찰로서의 미국 역할 포기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는 마치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최근 증가하는 국지적 분쟁(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태국-캄보디아 긴장)과 각국에서 발생하는 내전에 준하는 시위(예: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선교사와 선교단체는 복음을 전하며 이를 위해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의의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가 아닌 NGO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국가들이 반응하여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각국에서 보편적 규범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규칙을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따라 선교사가 감금이나 추방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 답변 7.

말씀처럼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축한 것도, 지금 트럼프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2 차 세계대전 및 냉전 후에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축하고 수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이었다면 지금은 수정주의 세력의 부상 등으로 사실상 국제체계가 다극체제로 가며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국익만 챙기겠다며 세계경찰국가 자리를 사실상 내려놓은 결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란 대통령 등 수정주의 세력 국가 수장들이 지난 3 일 60 년만에 중국에 모여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많은 수입니다. 최근 폴란드 영공까지 드론으로 침범했고 이에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병력 4 만명을 급히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하마스 요인들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비판하자 네탄야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PEW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유럽과 일본, 한국 등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존해왔던 친미 국가들에서는 트럼프가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며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국지적 분쟁과 내전에 준하는 시위 발생도 규범,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연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세계경찰국 역할을 하던 미국이 이를 못하겠다고 내려놓자 중국,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국을 믿고 따랐던 국가들이 이제는 못 믿겠다며 자국 이익을 내세우며 자기 살길을 찾는 모습이 커지고 있고 그 사이에 국지전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2)와 관련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따라 반이민을 기치로 한 극우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국에서는 Make Britan Great Again 운동이 일어나 트럼프처럼 '영국 우선'을 외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개발원조 등을 경시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이쪽 분야의 NGO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NGO 와 유사한 성격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선교사가 어떤 국가에서 감금이 되면 미국 정부는 이를 문제삼아 선교사가 풀려난 경우들이 많았고 국가들은 이런 미국을 의식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식은 미국 교회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선교사에 불이익을 준 국가에 압력을 넣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대표적 지지 세력으로 보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선교사를 돋는 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 선교

정교운(페르시아연구회 연구팀장)

## 초록

우리는 현재 미전도 종족(UPG, *Unreached People Group*)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있다. 최근 선교계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접근이나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종족(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선교 역사 속에서 국가 단위 중심의 선교에서 민족 단위 중심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민족별로 복음 전파와 접근 방법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미개척 종족(UUPG)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가 내 다양한 민족을 함께 섬기는 사역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선교사가 섬기는 미전도 종족(UPG) 안에서 미개척 종족(UUPG)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고자 한다. 나아가 민족을 향한 선교사의 접근 방식과 태도에 대해 나누고 미개척 종족(UUPG) 선교를 통해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 목차

1.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작
  - 1-1. 1차 로잔대회-왜 민족인가? (1)
  - 1-2. 성경과 선교 역사에서의 민족-왜 민족인가? (2)
  - 1-3. 미전도 종족 선교 현황
2. 미개척 종족이란?
  - 2-1. 미개척 종족 개념
  - 2-2. 미전도 종족 안에(함께) 있는 미개척 종족
  - 2-3. 선교지 현장의 변화와 미개척 종족 선교

### 3. 미개척 종족 선교의 현장 적용

#### 3-1. 현장 사역자의 방향과 전략

3-2. 미개척 종족에 대한 현장 사역의 실제: 국가 내 다양한 민족 사역 사례

#### 3-3. 미개척 종족 선교 동원

#### 3-4. 미개척 종족 단기팀 운영 사례

### 4. 미개척 종족이 현장 사역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 4-1. 민족을 대하는 사역자의 태도

#### 4-2. 사역의 확장-미개척 계층과 세대 전도

### 5. 결론

### 참고문헌

## 1.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작

### 1-1. 1차 로잔대회 — 왜 '민족'인가? (1)

1974년 로잔대회는 세계 선교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이 자리에서 랠프 원터와 도널드 맥가브란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종족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며, 같은 종족 안에서는 복음이 훨씬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반대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집단 사이에는 사회적·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 확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맥가브란(1955)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같은 문화권·언어권 안에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의 실제 단위는 개인(individual)이 아니라 종족 집단(people group)임을 강조했다. 이는 '동일 종족 집단 회심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정승현(2016)은 맥가브란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의 동일 종족 집단 이론은 인도의 힌두교 현장에서 탄생해 실천되었지만, 무슬림 미전도 종족 선교에도 적용 가능하다. 실제로 무슬림 인구만 2억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개신교 교단들은 특정 종족을 배경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교단 중 하나인 HKBP(Huria Kristen Batak Protestan)는 수마트라 바atak족을 기반으로 하며, 북부 술라웨시에는 GMIM(Gereja Masehi Injili di Minahasa)가 미나하사족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중부·남부 칼리만탄에서는 다양족을 기반으로 한 GKE(Gereja Kalimantan Evangelis) 교단이 존재한다. 이처럼 종족 중심의 선교는 종교적 요인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교 단위는 '국가'에서 언어·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 '민족'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도 국가나 공용어 차원이 아니라 개별 종족으로 옮겨갔고, 각 민족의 복음화 상황이 별도로 분석되며 미전도 종족의 규모가 발표되었다. 이는 현장 선교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선교 대상이 국가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국가 안의 다양한 민족이 같은 제도(교육·납세·노동 등)를 공유하며 공용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선교 장벽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민족이 지닌 언어, 문화, 역사, 정체성에 따라 복음 전파의 장벽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대해 한철호(2016)는 이렇게 설명한다.

"선교는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라는 사회성 때문에 존재한다. 복음은 같은 문화 안에서만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복음은 여러 개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한 연못에 던진 돌의 파장은 다른 연못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른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그 연못에 돌을 따로 던져야 한다. 이것이 곧 선교이며, 모든 문화 집단에 파장을 일으키려면 선교사들이 각 민족에 들어가 각기 다른 전략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족 집단이 지닌 고유의 역사, 설화, 주요 사건들은 구성원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민족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것이 선교 단위가 '국가'에서 '민족'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 배경이다.

## 1-2. 성경과 선교 역사에서의 민족 — 왜 '민족'인가? (2)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책이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향해 진행된다. 성경은 그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모든 민족 단위로 흘러가리라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주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으로 확산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 성경 번역에서 “모든 족속”을 All nations라고 한 부분이다. 17세기 영어에서 nation은 오늘날의 ‘국가(state)’보다 ‘민족·종족·집단’에 더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 성경 번역자들이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로 nation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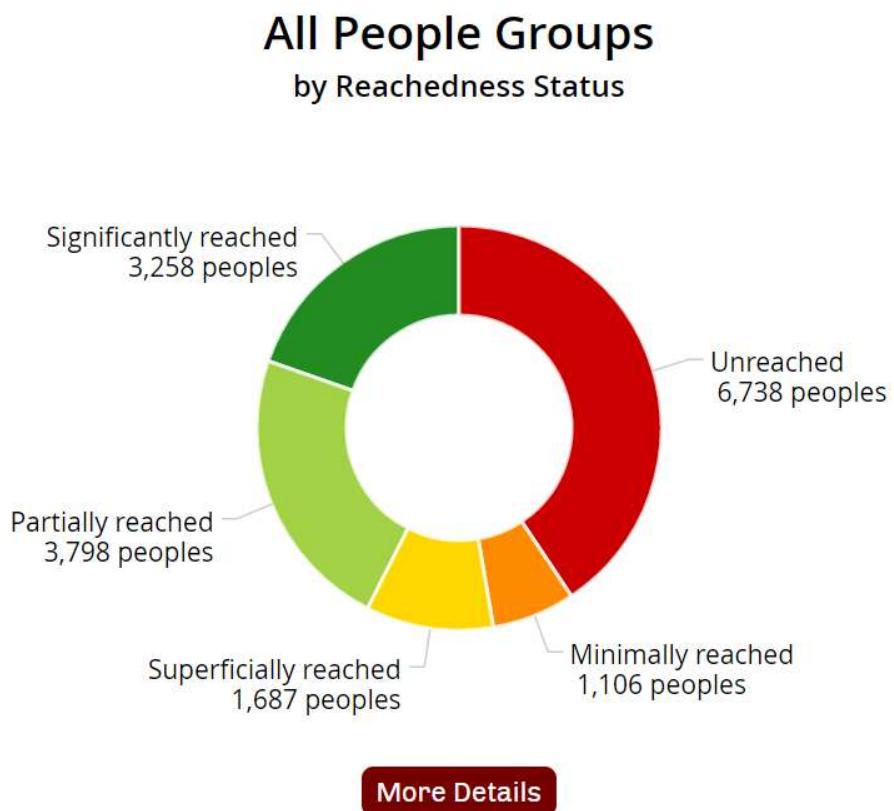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우리는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더라 (사도행전 2:1~11)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지역과 민족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복음이 민족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전해지는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민족’을 향해 진행된다고 증언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대인의 역사만 봐도 그렇다. 기원후 70년 유대-로마 전쟁 이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2천 년 동안 국가 없이 살았지만, 언어·문화·종교를 지닌 민족 정체성을 지켜냈다. 결국 1948년, 그 민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다. 이는 ‘국가’보다 ‘민족’이 복음 역사에서 더 본질적 단위임을 보여준다.

선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전환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974년 로잔대회는 선교 대상 집단을 '국가'에서 '민족'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그 안에 숨어 있던 수많은 민족이 드러나면서 각각을 향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하나의 '소비에트'라는 단일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가 선교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연방 해체 후, 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각기 다른 민족들이었다. 정치·외교·경제적으로는 해체로 불렸지만, 선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민족'을 드러내신 사건이었다.

### 1-3. 미전도 종족 선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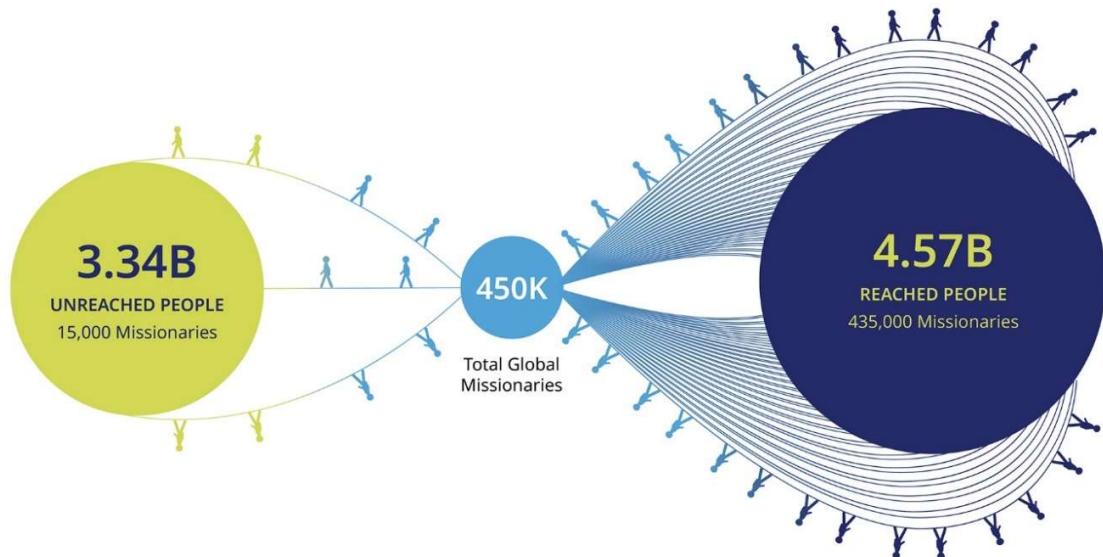


### JOSHUA PROJECT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주의 신자가 2% 이하인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인 신자 공동체가 있더라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충분한 수와 자원을 갖추지 못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로잔대회 이후 세계 교회는 국가 안에 숨어 있던 민족을 발견하고, 이들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황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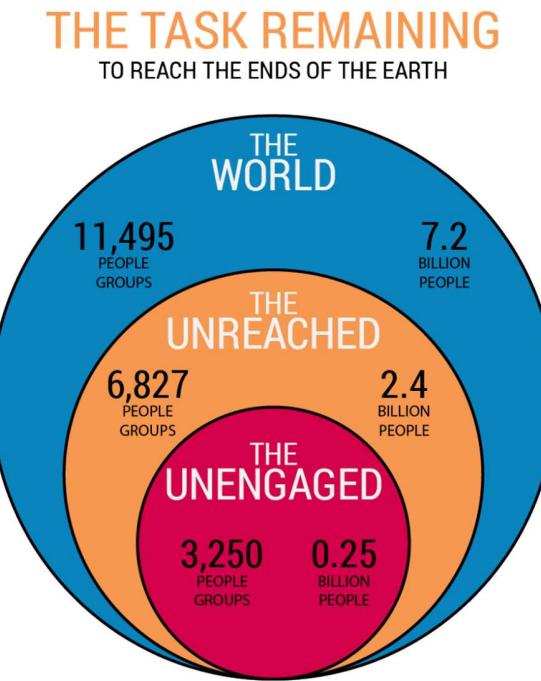
현재 전 세계 외국인 선교사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는 약 1만5천 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3% 수준이다. 로잔대회 이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미전도 종족 선교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로잔 운동과 여러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전도 종족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자원 배분을 보면, 선교사의 97%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사역하고 있고, 미전도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는 고작 3%다. 선교 재정 역시 1% 미만만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에 사용되고 있다.

## 2. 미개척 종족이란?

### 2-1. 미개척 종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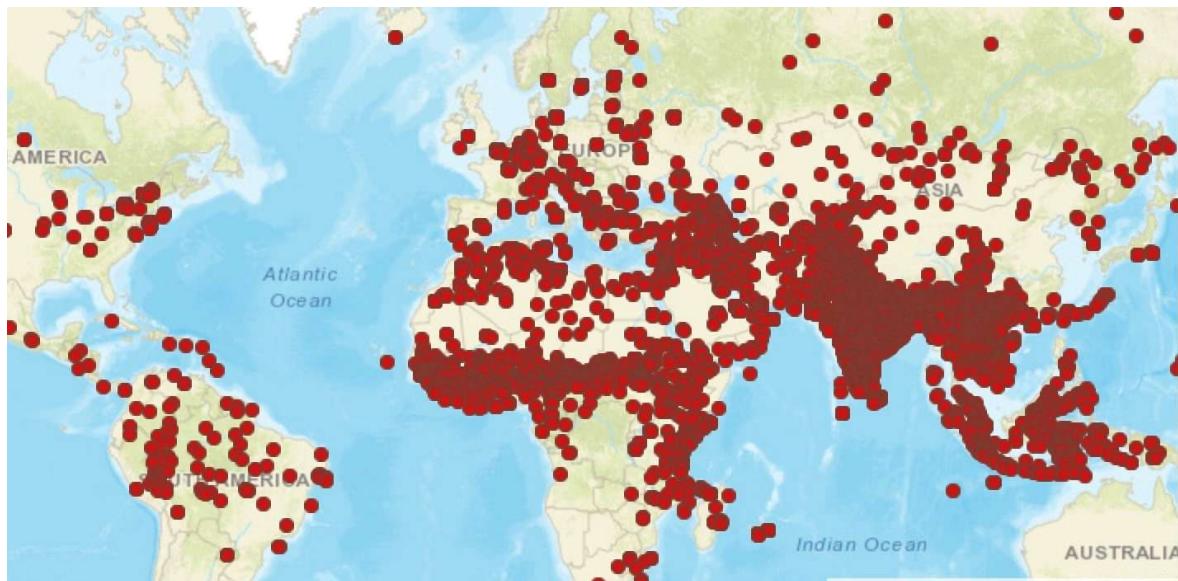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7,400개 종족(11,500여 종족으로 추산하기도 함)이 분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000개 종족(42%)이 복음 접근이 거의 없는 미전도 종족(UPG)이다. 그 중 약 3,000개 종족(미전도 종족의 42%), 즉 약 2억 9천만 명은 아직 선교적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종족(UUPG)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주로 10/40 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정의에 있어서도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맥락이다.

- IMB는 미개척 종족을 “그들 가운데 알려진 교회 개척 전략이 전혀 없는 종족”으로,
-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알려진 신자와 교회 개척 전략이 없는 미전도 종족”으로,
- Finishing the Task(국제 네트워크)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현재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한다.

## 2-2. 미전도 종족 안에(함께) 있는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 분포(Pray 1040)

조사 기관마다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포는 대체로 일치한다. 세미연의 조사에 따르면, 미개척 종족의 수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미개척 종족이 대부분 기존 국가의 경계 안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개척 종족 분포(IMB)

이들은 산간 오지에서 국가 시스템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오히려 국가 내 도시에서 다수 민족과 함께 생활한다. 다시 말해, '미개척 종족'은 반드시 외딴 지역의 고립된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2-3. 선교지 현장의 변화와 미개척 종족 선교

오늘날 기술 발전은 세계를 빠르게 하나로 묶고 있다. 교통과 물류의 발달로 이동은 자유로워졌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가상 공간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연결망은 특정 집단의 공간적·정신적 고립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종족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개척 종족은 대체로 국가 안의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며, 사법·교육·납세·노동·병역·언론·예술·체육 등 동일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낙후 지역은 점차 개발되고, 도로망이 확충되며,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공용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민족적 특색은 점점 희석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수 민족(국가 내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이미 성경과 복음 자료(책자, 영상, 오디오 파일 등)가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수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맞닥뜨린다.

"이미 미전도 종족 선교가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개척 종족을 향해 별도의 사역적 접근이 과연 필요한가?"

## 3. 미개척 종족 선교의 현장 적용

### 3-1. 현장 사역자의 방향과 전략

성경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마 28:18)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은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을 향해 나아간다.

동시에 주님은 사역의 전략에 대해서도 원칙을 제시하셨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마 12:29)는 말씀은 영적 전쟁의 원리일 뿐 아니라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제적 지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거점 지역과 관문 도시에서 사역을 전개해 왔다.

결국 미개척 종족을 향한 선교의 직접적 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복음의 방향은 “민족”이며,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거점과 관문 도시”라는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2. 미개척 종족에 대한 현장 사역의 실제: 국가 내 다양한 민족 사역 사례

국가 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대표적 사례로 이란과 파키스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란에는 약 7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거주한다. 현장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특정 민족만을 섬기기보다 “이란 전체”를 품는 개념으로 사역해 왔다. 한 이란 선교사(M)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했으며, 이곳에는 UPG가 정착하여 생활하고 UUPG도 방문하기 때문에 두 집단을 동시에 섬길 수 있었다. 또 다수 민족(UPG)이 복음화되면 이들이 UUPG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따라서 관문 도시 중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UUPG는 관문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UPG가 UUPG에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UUPG는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UUPG 선교는 기존 사역(UPG)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지역은 거점 도시에서 차량으로 하루가 걸리는 오지에 있다. 단기팀의 접근도 어렵고, 현지 사역자나 다수 민족조차 이곳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곳에는 별도의 UUPG 팀이 직접 들어가야 한다.

사역의 역할에 있어서 단기팀은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장·단기 사역자는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팀 사역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사역자는 거점 도시(UPG 지역)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UUPG의 규모가 크고 함께할 동역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파키스탄에는 약 49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거주한다. 이곳의 사역은 “파키스탄 팀”이라는 우산 아래 다양한 소수 민족을 섬기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각 민족을 특정하여 그들의 거주 지역에 직접 들어가 사역하되, 국가 단위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파키스탄의 H 선교사는 미개척 종족(UUPG)이 여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배경과 이유를 미전도 종족(UPG)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개척 종족(UUPG)은 미전도 종족(UPG)에 비해 진입 장벽이 훨씬 높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지리적 고립-즉,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과 정치적 이유를 들 수 있다. 특히 중앙 정부와 갈등이나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민족의 경우, 외국인의 방문과 장기 거주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교 활동 역시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H 선교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개척 종족(UUPG) 선교는 일반적으로 미전도 종족(UPG) 지역에서 선교적 기반을 먼저 구축한 뒤 그 발판을 활용해 미개척 종족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미전도 종족(UPG)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 선교가 서로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파키스탄 현지의 실제 사역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교회개척 사역을 담당하는 각 유닛들은 파키스탄 내 여러 민족별 팀으로 활동했다. 각 팀이 섬기는 민족의 현황과 기도제목이 정기적으로 다른 팀들과 공유되면서, 민족 간 경계를 넘어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정보 및 의견 교환이 가능했다.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각기 다른 민족의 영혼들을 함께 섬기는 기회가 주어졌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 특별한 은혜와 연합의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결국 한 나라 안에서 하나의 팀이면서도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교회개척 네트워크로서, 이 사역은 분명한 시너지와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 3-3. 미개척 종족 단기팀 운영 사례

올여름, T국의 자자 민족을 대상으로 한 청년 단기팀의 사례를 살펴보자. 자자 민족은 K민족의 한 갈래로 분류된다. 따라서 K민족의 장기 사역자가 자자 민족 단기팀을 운영하였다. 팀은 K민족의 거점 도시에 들어와 며칠간 머물며 현지 공용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한 뒤, K민족과 자자족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를 거쳐 자자족의 본거지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사람들을 만나고, 박물관을 방문해 민족·문화·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거리 전도와 공연을 통해 청년들을 만났고, 사역을 마친 뒤에는 다시 K민족의 거점 도시로 돌아왔다.

자자 민족은 T국가 시스템 속에서 K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단기팀의 운영도 K민족 사역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단기팀은 자자족을 향한 강한 마음을 품었고, 사역이 끝나기도 전에 자자족에 대한 선교 동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자자족 선교는 K민족 사역과 협력하여 이어질 것이다. K민족 선교사팀은 자자족을 별도의 선교대상 집단으로 인식하고 섬기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자자족을 섬기는 선교사들은 K민족 선교팀으로 현장에

나와서 K민족 거점 도시에서 사역하며 방문 사역 등으로 선교할 것이다. 향후 독립적인 장기팀이 세워진다면, 자자족 거점 도시에 파송될 수 있을 것이다.

### 3-4. 미개척 종족 선교 동원

우리는 “민족을 향한 헌신자”이며, 민족을 나누어 선교 자원을 동원한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선교 동원은 현지 선교사의 활동보다 중요하다. 이는 큰 불 속에 뛰어들어 양동이로 물을 봇는 것보다 백 명의 잠자는 소방관을 깨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다(Larry Reesor, 2015).

실제로 선교 동원 사역(Mission Mobilizing Ministry)은 세계 기독교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었고, 선교 역사 속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Ralph D. Winter, 2010: 494).

그렇다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그 안의 미개척 종족을 향한 “동원”은 어떤 의미일까? 만약 단기팀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그 민족을 품어 장·단기 사역자로 헌신한다면,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미전도 종족 속에 함께 살아가는 미개척 종족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미개척 종족 선교는 그들의 고유한 상황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다수 민족과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다수 민족이 거주하는 거점 도시에 사역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미개척 종족 선교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개척 종족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미개척 종족을 향한 선교팀이 별도로 파송될 필요는 없다. 미전도 종족팀에서 미개척 종족 선교를 하고 미개척 종족 선교사도 기존의 미전도 종족 선교팀에 합류하여 협력하며 사역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 4. 미개척 종족이 현장 사역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 4-1. 민족을 대하는 사역자의 태도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민족을 단위로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기에 사역자는 민족의 관점에서 사역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가 내 다수 민족의 시각이나 선교 전략적 필요에 따라 미개척 종족을 단순히 부속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교 대상이 되는 집단, 민족과 개인에 대한 세심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광대한 공간 속에서도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나 천사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죄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보면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을 팔아 노예의 신분이 된 선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노예의 정체성으로 그들이 사는 섬으로 가서 선교했다. 이는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을 향한 우리의 접근과 태도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민족의 크기, 사역적 효율성이 전에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4-2. 사역의 확장 - 미개척 계층과 세대 전도

미개척 종족에 대한 관점과 선교적 접근은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특정 계층과 세대를 향한 사역에 통찰을 줄 수 있다.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진 집단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민, 이주 노동자, 또는 특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유목민 집단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 비율은 약 4%에 불과한데 이런 특정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국가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복음 접근 방식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동시에 공산주의나 채식주의와 같이 특정한 사상을 공유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사고방식과 행동, 태도를 가진다. 이들도 미개척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들을 향한 접근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 5. 결론

선교의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다. 미개척 종족 선교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민족마다 복음에 저항하는 장벽은 다르며, 따라서 같은 국가 안에 거주하더라도 선교는 민족별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개척 계층과 세대를 향한 사역에도 적용될 것이다.

미개척 종족이 선교 담론에서 주목받는 것은, 미전도 종족 속에 숨어 있던 마지막 민족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개척 종족 선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과 같다. 복음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며, 주님은 마지막 남은 민족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마지막 남은 민족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철호. (2016, September 6). 동일 종족 회심운동(People movement)을 아시나요! *Mission Partners*. [https://www.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_view.php?no=652&page=1&search=&page\\_no=78&category\\_no=&admin\\_page=&site\\_Number=1&GM\\_mobile=&sm\\_no=&search\\_option=&cls=](https://www.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_view.php?no=652&page=1&search=&page_no=78&category_no=&admin_page=&site_Number=1&GM_mobile=&sm_no=&search_option=&cls=)

현대선교 19. (2016, December 1). 선교운동의 지속과 재생산. *GMF Press*, 7–33.

Finishing the Task. (n.d.).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UUPGs). *Finishing the Task*.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www.finishingthetask.com/uupgs.html>

International Mission Board. (n.d.). Reaching 3000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International Mission Board*.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www.imb.org>

Joshua Project, & IMB Global Research Office. (n.d.). Definitions of unreached people groups & UUPGs. *Joshua Project*.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joshuaproject.net>

Lausanne Movement. (n.d.).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 Missiologically thinking. *Lausanne Movement*.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lausanne.org>

PeopleGroups.org. (2025). 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 groups overview. *PeopleGroups.org*.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peoplegroups.org>

Pray1040. (n.d.). Unreached people groups: The ultimate guide. *Pray1040*.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pray1040.com>

Project42 Partners. (2021). The stats. *Project42 Partners*. Retrieved September 4, 2025, from <https://project42partners.org>

## 질의응답

### 질문 1.

국가단위의 접근에서 소외되었던 민족단위의 접근에 대한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족의 개념이 과연 성경에서 말한 민족의 개념과 같은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에릭 홉스봄이 '민족이란 개념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구성된 산물'이라 주장한 것처럼 실제 많은 근대국가의 민족 개념은 혈통적 관계를 벗어납니다. 터키인(Turkish)은 투르크인(Turkic)과는 다른 인위적인 민족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로 사역하는 투르크 민족과 아랍민족은 여러 나라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 개념의 하위에 국가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UUPG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 나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선교의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라는 명제는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투르크 민족이나 아랍민족처럼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민족의 경우는 UPG와 UUPG의 관점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서 민족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런 접근법은 본 글에서 밝히는 것처럼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다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토양에서 발달한 것으로, 강력한 일신교인 이슬람의 중심지에서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다 이슬람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 이슬람의 중심 국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논쟁은 많았지만 "백 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하에 이슬람의 견고한 진에 대한 접근은 민족적 접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UUPG와 UPG의 상호보완 자체는 좋은 접근이나 현장에는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중요한 과제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답변 1.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은 정치와 맞물려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었고 민족주의도 이런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드신 대로 터키인(Turkish)은 투르크인(Turkic)은 다른 민족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공유하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선교 대상 단위를 세부적인 민족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족은 언어,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선교 대상이 민족 단위가 되어야 이유는 언어,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벽이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터키의 경우 근대 국가를 세우며 터키 안에 살며 터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투르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터키 안에는 70 여개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안에서 터키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민족(언어, 문화, 정체성)입니다. 이들에게 터키라는 국가를 단위로 선교적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언급하신 말씀에 따르면 주류 민족 아래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 아래 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4 천년 전 아브라함 시기와 2 천년 전 초대교회 시기의 민족 개념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UPG 와 UUPG 는 민족을 기반으로 집단을 분류합니다. 본 발표에서는(UPG/UUPG 사역하는 단체도) 민족을 혈통적인 기준으로만 나누지 않고 선교 접근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민족 집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다게스탄에서도 투르크 계열 언어를 쓰는 노가이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혈통적으로 투르크라고 해서 터키의 투르크 민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다게스탄 사역자와 투르크 사역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터키 내에 출신 국가에 따라 아랍 민족을 12 개로 분류합니다. 이들을 한 집단으로 보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때에도 이슬람 안에서 다양한 종파와 하위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보기是很 어렵습니다.

맥가브란 선교사는 인도의 한 마을에 들어가 사역할 때, 카스트 제도의 신분의 차이로 마을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별로 복음을 전하고 집단 내에서 회심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국가에서 민족으로 선교 대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구체적인 UUPG 사역과 함께 우리가 민족을 보는 관점, 선교 대상인 집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 질문 2.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겐 많은 생각과 고민을 주는 글 감사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과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속에서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길이 좀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질문입니다.

2 차 로잔대회 이후 몇 가지 큰 선교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흐름은 2 차 로잔대회 이후 하이델베르크 대회-파타야 대회-마닐라 대회-케이프타운 대회-서울 대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크게 존 스토프의 사회참여와 빌리 그래함의 복음전도의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결국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와 통전적 선교로 연결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기존에 랄프 원터 박사가 제시한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를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려는 개념이었습니다. 반 엥겔의 선교적 교회 개념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치료자이며 해방자라는 개념을 담고 있으며, 그의 논의는 마지막 장에서처럼 모든 분야(사회, 세대, 환경)를 선교적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Everything is mission, nothing is mission"이라는 표현은 선교학자 스티븐 닐(Stephen Neill)의 경고처럼, 모든 것을 선교라고 부를 때 오히려 진정한 선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이한 점은, 초기 로잔대회에서 강조되었던 '미전도종족' 개념의 본래 의미가 점점 약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이 흐름이 현재 복음주의 선교의 주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글의 4-2. 사역의 확장 - 미개척 계층과 세대 전도부분도 이 흐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2. 두 번째 흐름은 로잔대회에서 랄프 원터 박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전도종족 집중'의 초기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흐름은 조슈아 프로젝트, 프론티어 벤처스(USCWM, 현 Frontier Ventures) 등을 통해 이어졌으며, 미전도종족-최소 접촉 미전도종족(Unreached & Unengaged People Groups, UUPG)-FTT(마지막 종족 운동) 등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미전도종족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통계적 자료와 상황에 집중하는 특성상, 인도·파키스탄 등지에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렸고, 특히 9·11 사태 이후 서구 선교사들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면서 동남아시아·남아시아로의 집중이 강화된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흐름은 2001년 9·11 사태를 기점으로 서구 교회 리더십과 비서구 교회 리더십의 변화를 인식한 흐름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미전도종족 선교 리더십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흐름은 2 차 로잔대회에서 제시된 파라처치(소달리티)와 로컬처치(모달리티)의 구분을 받아들여,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권을 단순히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으로만 보지 않고, 복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전 지구적 영적 전쟁' 개념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서구권 사역자들이 이슬람권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한국 교회를 비롯한 비서구권 교회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인 평신도 선교운동, 전략적 단기선교운동, 1~2년 학생선교사운동의 기여가 있었고 이후 이 흐름은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의 역동성, 선교운동의 확산, 현지 교회 리더십의 빠른 성장, 청년 세대의 역사적 사명 의식 고취 등을 통해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추구했습니다.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같은 종말론적 현상을 전 지구적 '남은 자들의 연대'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는 흐름으로 발전했습니다.

4. 네 번째 흐름은 로잔대회 이전부터 100년 이상 해외 선교를 이어 온 서구권 선교단체들(OM, IMB, 인터서브 등)의 전통적인 흐름입니다. 이들은 현지 교회 개척과 현지인의 자생적 리더십 함양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선교 관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선교지에 파송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WCC에서 주장한 '생명의 복음'과 같은 다른 선교적 흐름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주의 선교 안에서 주요한 흐름은 위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UPG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들에게 UUPG(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 Groups)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답변 2.

질문하시며 현대 선교의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타문화 전도입니다. 타문화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일반적으로 타문화는 다른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민족으로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선교의 전통적인 정의는 선교사가 다른 나라, 민족에 가서 문화를 건너 다른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각 집단이 분화되며 타문화에 대한 규정이 국가 내, 민족 내 다양한 특성(문화)을 가진 집단(세대, 계층 등)으로 확대되며 이들에 대한 전도(자국 내 특정한 집단에 대한 복음전파)에 선교의 개념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1 차 로잔대회 이후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중요도가 등장하였고 9·11 사태 이후 비서구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의 목표는 자생적 교회 개척이고요.

이러한 선교 역사적 흐름 속에서 UPG 사역자들은 지역 내 UUPG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에게 접근할 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민족을 섬길 때,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당연하게도 각자의 삶과 경험에 따라 복음의 접근점이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UUPG를 바라보고 (UPG 사역과 함께)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국가 내, 민족 내 다양한 계층을 바라보고 접근해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한 사상이나 문화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을 봅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이고 최근 채식주의, 페미니즘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사회적 종족의 개념으로 이들을 향한 접근과 사역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입니다.

### 질문 3.

랄프 원터(Ralph Winter)는 2002년 글에서 민족 집단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1. 문화권 (Cultural Blocs)
2. 언어민족 (Ethnolinguistic Peoples)
3. 유니맥스 민족 (Unimax Peoples)
4. 사회집단 (Sociopeoples)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니맥스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니맥스 민족은 복음이 더 이상 뚫고 나아가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구분된 최대 단위 집단을 의미합니다. 원터는 특히 이 접근법을 강조하며, 그 가치는 단순히 경계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계 너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혼신된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더 큰 민족 집단 안에 속한 작은 집단들이 복음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니맥스 접근의 핵심입니다.

원터는 각 접근법이 선교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유용성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문화권 접근은 세계 전체의 선교 현황을 조망하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과업을 요약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언어민족 접근은 선교 전략을 세우고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니맥스 접근은 실제 교회 개척 사역에 가장 적합합니다. 사회집단 접근은 소그룹 전도와 같은 현장 사역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선교 대상 단위를 국가나 민족이라는 범주로만 고정하기보다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세계 선교의 큰 그림과 현황을 볼 때는 문화권 단위가 적합하고,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언어민족 단위가 효과적이며, 교회 개척을 논할 때는 유니맥스 단위를 고려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 답변 3.

우리가 종족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족 개념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에 대해 공통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제법 규모 있는 집단으로 민족적, 사회학적인 집단'이며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복음화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교회개척 운동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을 하나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족집단은 인종언어학적 종족(ethno-linguistic people group)과 사회학적인 종족(ethno-Sociological people group)으로 분류하는데,

랄프 윈터는 종족집단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1. 인종/언어학적 종족으로 공통적인 혈통, 역사, 관습, 언어 등 동일한 전통을 공유하는 인종 또는 종족집단-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족, 민족 개념/한 국가내 여러 종족이 거주
2. 사회적 종족으로 공동 관심사나 직업 등의 어떤 목적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비교적 작은 사회적 집단-인종/언어학적 같은 종족 안에서도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며 예를 들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집단 혹은 계층입니다.
3. 단일 최대종족(unimax peoples)으로 규모로는 인종/언어학적 종족과 사회적 종족 중간에 위치하며 복음 운동이나 교회개척 운동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단일화된 크기의 집단이며 "단일화된" 이라는 말은 집단 내에서 복음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때 복음 전파를 중단시킬만한 중대한 장벽들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단일 최대종족을 향한 접근법은 인종/사회 종족 내에서 복음의 흐름을 막는 경계선들이 어디 있는지 밝혀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언어/인종 종족 내에서 어떤 문화적 편견의 경계선들을 있고 또 다른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종/언어학적 집단 내에 있는 어떤 작은 집단도 선교사들의 시야에서 '숨겨져'있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는 종종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모든 종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종족을 분리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 계급 구분, 교육, 정치적·이념적 신념, 씨족이나 부족 간의 역사적 적대감, 관습과 행동 등은 모두 유니맥스(unimax) 민족 집단 내에서 강력한 사회 문화적 경계를 형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이 "미전도 종족"의 수에 대한 추정치가 서로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사회 문화적 장벽은 외부 관찰자에게는 종종 통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맥스 방식으로 종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한 종족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단계가-복음에 저항하는 장벽을 파악하는 것-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개척 종족에서 종족은 언어/인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집단인 이주 노동자 계층도 종족이고 단일 최대종족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복음에 저항하는 또 다른 장벽이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으로 디아스포라된 민족-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에 사는 아르메니아인과 터키에 사는 아르메니아인은 다른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같은 인도인이지만 카스트 제도의 신분에 따라 다른 종족으로 분류되고요. 어쩌면 유목 씨족 문화가 장한 쿠르드의 경우 거대한 씨족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채식주의자 등 특정한 사상을 공유한 집단(지형적인 한계를 넘어서)를 한 종족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개척종족에 대한 관점은 국가와 지역, 민족 내에서 복음을 저항하는 또 다른 장벽 뒤에 숨어있는 집단들을 찾아내어 침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질문 4-답변 3에 대한 질문과 의견제시

랄프 원터 박사가 제시한 세 가지 종족 분류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통용되는 정의라기보다는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제안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종족 개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나 특정 계층을 종족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통적인 종족(ethnic group)의 정의와는 괴리가 있으며,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민족들"에 관한 예언과 그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 전략상 이러한 집단과 계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적 관점에서는 언어와 혈통만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 이주, 문화적 적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음 전파의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집단을 모두 "민족"이나

"종족"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대상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존의 '민족/종족' 개념과 구분되는 용어와 범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대상은 반드시 '민족(ethnos)'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터 박사의 제안처럼 더 작은 하위 그룹으로 접근할 때 분명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을 억지로 확장하기보다는, 민족 개념은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되, 선교적 필요에 따라 '하위 집단(sub-groups)'이나 '사회적 집단(socio-groups)' 같은 보조 개념을 병행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질문 5.

랄프 원터 박사가 제시한 미전도 종족 개념은 약 50 여 년 전에 형성된 용어입니다. 당시 그는 복음화율 2%라는 명확한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법론은 실증적 통계라기보다는 현장 사역자들의 경험적 관찰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즉, "현장에서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더라"라는 판단에서 출발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등 인류의 환경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렇기에 미전도 종족 개념 또한 보완되고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외부 선교사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토착 교회의 존재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복음화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낮으면 교회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없고, 따라서 선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입니다. 실제로 복음화율이 5%를 넘어서는 집단이라도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자생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의 복음화율을 가진 민족이지만 스스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독교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많이 있고, 복음화율은 내생적 성장에 있어서 한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선교 전략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미전도 종족 개념을 존중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적 맥락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답변 5.

질문을 통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말할 때 양적으로는 전체 인구 대비 복음화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현지 교회의 자립성-'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화율-'신자의 숫자와 교회의 자립성이 비례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거 같네요. 인도와 파키스탄 교회를 본다면 신자 수에 비해서 교회의 자립성은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교회의 자립성에 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저는 초기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자립, 자치, 자전의 삼자원칙이 좋은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단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으로 할 지, 자립적 현지 교회가 없는 종족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외부 선교사들의 사역의 방향도 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 다같이 산다

- 다게스탄에는 어떻게 다양한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모여 살게 되었나?

조영래 (러시아소수민족연구회 연구팀장)

캅카스 설화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가 각 민족에게 언어를 나눠줄 때, 험준한 캅카스 산맥을 넘다 언어 주머니가 찢어져 북캅카스에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연방내 북캅카스 지역에는 아디게이, 까라차이 체르케시아, 까바르디노 발카리야, 북오세티아, 잉구쉬, 체첸,



다게스탄 7 개 공화국에 100 여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다게스탄은 7 개 북캅카스 공화국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게스탄은 투르크어로 "산의 나라"란 뜻으로, 푸른 바다와 험준한 봉우리, 엄격한 풍습과 따뜻한 손님 접대, 호전적인 조국애와 관대함, 열정과 느긋함, 유쾌함과 고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땅이다. 아바르, 다르긴, 쿠릭, 레즈긴, 락, 노가이 등 60 개가 넘는 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카스피해를 내려다보는 캅카스 산맥을 따라 좁은 해안선이 펼쳐지고,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와 초원길이 교차하는 고대 교통로가 이 지역을 지나갔다. 이 길을 따라 수많은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남부 캅카스 전역과 서아시아로 퍼져 나갔다(Gamkrelidze & Ivanov, 1990).



본 연구는 다게스탄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수많은 민족이 생겨나게 됐는지 지형적, 지정학적 측면과 지배 제국의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한다.



먼저 지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게스탄의 지형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으로 구분된다. 남서부 고산지대는 대캅카스 산맥의 일부로, 해발 4,000 미터가 넘는 설산(바자르뒤주 산, 4,466m)과 깊은 협곡이 발달한 지역이다. 다음으로 중부 내륙 고원은 산간 분지와 계단식 농경지가 형성된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취락들이 자리 잡은 중심지이다. 마지막으로 동부 연안 평야는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좁게 펼쳐진 평야지대로, 수도인 마하치칼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도시가 위치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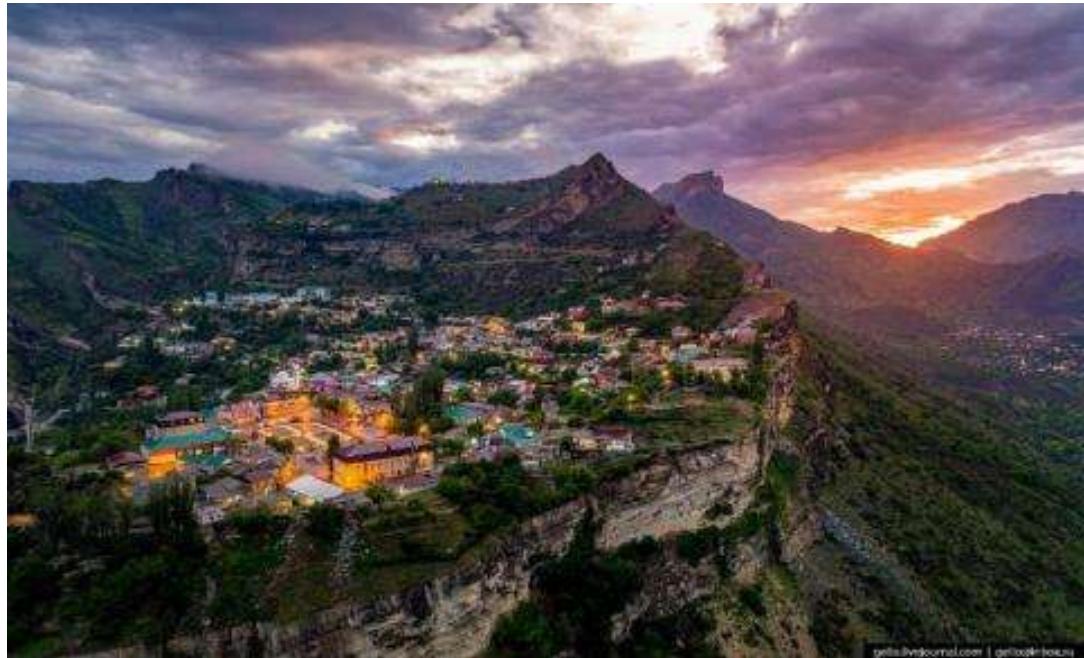


다게스탄의 험준하고 복잡한 산악 지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족과 언어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Polinsky, 2021). 이러한 지형적 특징이 민족과 언어의 다양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요새화된 환경'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산악 지형은 고도 차이가 크고, 국토의 약 4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발 고도는 0 미터(카스피해 연안)부터 4,466 미터(바자르뒤주 산)까지 다양하다. 깊고 험준한 협곡들은 산을 가로지르며 U 자형 또는 V 자형 계곡을 형성했고, 산 사이에는 고립된 고원과 분지들이 존재한다. 겨울철에는 눈에 갇히고, 여름철에는 급류로 인해 계곡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자연적 조건이 형성되어, 지역 간의 접근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적 장벽들은 민족과 언어의 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민족들간의 '분리와 고립'을 가져왔다. 깊은 협곡과 높은 산맥은 계곡과 분지 사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천연의 장벽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원래 하나였던 집단들이 각 계곡에 정착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작은 집단 내에서의 언어 변화는 빠르게 고정되었고, 다른 집단과의 교류가 제한되면서 각 집단은 독자적인 언어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각 계곡의 고도, 기후, 자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문화(농경, 목축, 수공업)와 관련된 어휘들이 발달하며 차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 '방어와 자율성'이다. 산악 지형은 외부의 침략자들(로마, 페르시아, 아랍, 몽골, 러시아 등)이 침입하기 매우 어려운 천연 요새 역할을 했다. 하나의 계곡을 정복하더라도 옆 계곡은 완전히 다른 세력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문화적, 언어적 동화 정책에 대한 저항이 자연스럽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중앙집권적 통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각 공동체는 자치권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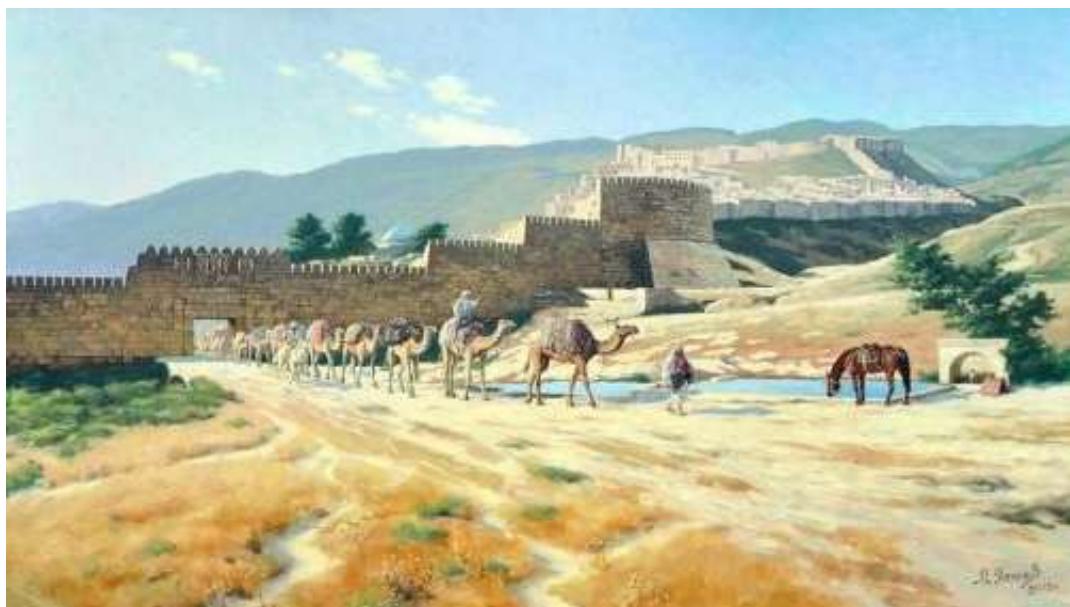
셋째, '수직적 생태계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형성되었다. 고도에 따라 기후와 자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고산 지대는 여름 목장지로, 중간 고도는 농경지로, 저지대는 겨울 목장이나 과수원으로 활용되는 수직 이동 생활이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계곡 사이에 제한된 교류가 발생했고, 이는 무역(양털, 곡물, 소금 등)과 정보 교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좁은 영토(대한민국의 절반 크기)에 30 개 이상의 고유 언어와 민족이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어족(북동캅카스어족) 내에서도 계곡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방언이 발전했고, 결국 별개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도 각 마을은 독특한 전통, 복식, 관습법을 보존했고, 민족 정체성이 역시 '다게스탄인'이라는 광범위한 정체성보다 '아바르인', '다르긴인', '레즈긴인'과 같은 소규모 민족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다게스탄의 지형은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냈다. 자연적 장벽이 분리와 고립을 촉진하여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낳았지만, 동시에 가혹한 환경과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다게스탄은 '완전한 고립도, 완전한 동화도 아닌' 상태, 즉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연결된' 독특한 사회적 구성을 갖게 된 사례이다. 이는 인류학과 언어학에서 '지리적 격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사례로 남아 있다(Kuchukova & Bauaev, 2022).



다음으로 지정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게스탄은 고대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핵심 통로였다. 북쪽으로는 광활한 폰토스 카스피 스텝 지대가 펼쳐져 유목민의 침략로가 되었다.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훈, 하자르, 몽골 등 수많은 유목 제국이 이 길을 통해 남하했다. 남쪽으로는 강력한 토착 문명인 페르시아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산악 지대를 세력 확장의 전초기지이자 문화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통로로 여겼다.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과 이후의 오스만 제국으로 연결되어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정치적 경쟁장이 되었다. 동쪽의 카스피해는 배를 통한 교역과 이동의 물길을 제공했다. 이처럼 다게스탄은 유목문명과 토착문명, 유럽과 아시아, 제국과 부족이 만나는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다. 누구도 이 전략적 요충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곳을 지나거나 점유하려 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불러왔고, 이는 다게스탄 사회의 구조 자체에 깊이 각인되었다. 페르시아와 아랍, 몽골, 러시아 등 외세의 반복된 침략과 지배 양상은 다게스탄 역사 연구(Magomedov, 1961)에서 일관되게 지적된다. 또한 다게스탄 민족 구성의 다양성은 러시아 학계의 종합 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Terekhov, 1997).

페르시아와 아랍의 지배는 이슬람교와 페르시아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아랍인은 행정 체계와 문자에, 페르시아인은 건축과 문학에 영향을 남겼다. 몽골의 침공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거대 제국의 교역 네트워크에 다게스탄을 연결시켰다. 러시아의 정복은 가장 최근이자 가장 오랜 지배로, 현대 다게스탄의 행정 경계와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위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침략과 지배는 다게스탄의 원래 민족들을 소멸시키거나 완전히 동화시키지 못했다. 끊임없는 외부 유입은 파괴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문화적 합성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선물이기도 했다(Yakubova, 2023).



다게스탄의 원주민 언어들은 이 다양한 언어들에서 수많은 단어를 차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법 체계는 굳건히 지켜냈다. 이는 마치 다게스탄의 전통 의상처럼, 다양한 색실이 엮여 하나의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다.

다게스탄은 역사의 폭풍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각 계곡에 단단히 내려져 있었고, 가지들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문화의 바람에 맞닥뜨려 새로운 잎을 피워내었다. 오늘날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수십 개의 언어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지정학의 거센 물줄기를 헤쳐 내고 생존해 온 강인한 생명력의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지배제국의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련 시기 학자들의 다게스탄 언어 보존에 대한 역할은 극명한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는 체계적 기록과 연구라는 긍정적 측면과 정치적 통제와 표준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유산이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소련의 민족 정책(Nationalities Policy)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정경택, 2012).



소련 학자들은 다게스탄 언어들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과학적 조사를 수행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파견된 언어학자들이 현지로 들어가 그때까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언어와 방언들을 최초로 녹음, 기록, 분석했다. 그리고 각 언어의 음운론(소리 체계), 형태론(문법 구조), 통사론(문장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문법을 작성했다. 이는 해당 언어들의 학문적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Gamzatov, 2000).

1920~30년대에는 아랍 문자를 대체하기 위해 라틴 문자 체계를 여러 다게스탄 언어에 도입했다. 이는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이었으며, 문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1930년대 말 소련 전역의 정책에 따라 모든 언어의 문자가 키릴 문자로 강제 전환되었다. 이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언어들에 통일된 공식 표기법을 제공했다.

또, 여러 언어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사전이 편찬되었다. 각 공화국 언어로 된 교과서와 독본이 출간되어 학교 교육에서 모어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지금도 다게스탄 초, 중등학교에서는 모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다게스탄의 수도 마하치칼라를 중심으로 한 다게스탄 과학 센터(Dagestan Scientific Center) 등에서 현지 언어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서남부, 언어의 박물관이라 불리는 북캅카스의 다게스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이름을 지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길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다게스탄의 30 여개의 언어를 가진 대부분의 민족들이 복음화율 0.01% 또는 0%인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으로 남아 있다.

"우리 다게스탄에서는 서로 가지 언어로 말하지만, 서로 세 가지 언어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모든 노래는 오직 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이다." (다게스탄 아바르 민족의 유명한 시인 라술 감자토프의 '나의 다게스탄' 중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이렇게 다게스탄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필요로 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계곡마다 다른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의 가사는 모두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수십 개의 언어가 하나의 마음을 이루었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거짓된 이슬람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신랑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교회의 기도와 섬김으로 성령의 바람이 다게스탄 계곡마다 불기 시작할 때 이들을 가지고 있는 거짓된 이슬람이 벗겨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어린양 예수의 이름이 다게스탄 수십개의 언어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 다게스탄 민족과 언어(Terekhov, 1997)

### 북동캅카스어족

아바르

안디

아흐바흐

바굴랄

보틀리흐

고도베린

카라틴

틴딘

차말랄

베쥐틴

기누흐

군집

디도이

흐바르신

아르친

다르긴

카이탁

쿠바치

레즈긴

아굴

루툴

짜후르

타바싸란

락

### **투르크어족**

쿠믹

노가이

### **인도 유럽어족**

러시아

타트

산악 유대인

## 참고문헌

정경택. (2012).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Gamkrelidze, T., & Ivanov, V. (1990). The early history of Indo-European languages. *Scientific American*.

Gamzatov, G. (2000). *Languages of Dagestan*. Russian Academy of Sciences.

Kuchukova, Z., & Bauaev, K. (2022). *North Caucasus: The mountain of languages and the language of mountains*. Kabardino-Balkariya University Press.

Magomedov, R. (1961). *History of Dagestan*. Dagestan Pedagogical University Press.

Polinsky, M. (Ed.). (2021).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s of the Caucasus*. Oxford University Press.

Terekhov, P. (1997). *Peoples of Dagestan*. Russian Academy of Sciences.

Yakubova, N. (2023). *Great Dagestan*. Bombora.

## 질의응답

### 질문 1.

다게스탄의 지형적 특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인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도 지역마다 다 방언이 있고, 방언이 심한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 공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가내에서 소통이 어려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제주도 방언도 공교육을 받은 세대가 표준어로 통역이 가능해서 육지 사람이 제주도를 방문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게스탄의 경우도 러시아를 공용어로 쓰고, 공교육은 공용어로 주로 하고 모국어는 추가로 교육해 준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게스탄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족 상관없이 소통이 가능한가요? 소련 시절부터 언어 연구와 교육을 했다면 수십년간 러시아어 공교육을 실시했을 것 같은데요.

공용어가 여러 민족에게 다 소통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민족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내부용으로 축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역적으로는 러시아어만 해도 충분히 모든 민족과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30 여개 언어를 다 배우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 답변 1.

관심있게 읽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게스탄 민족들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지 160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게스탄 내 민족들은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러시아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로서 대부분 산지에서 자신의 민족어만 사용하며 평생을 사신 고령자에 해당됩니다.

산지, 지방 사람들의 경우 청소년때까지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자라며 민족어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청년이 되면 대학 입학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며(대부분의 대학교육 무상), 많은 이들이 대학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정착하며, 도시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자녀들과 공용어인 러시아로 소통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민족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 중에 자신의 민족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지만, 양질의 수업이 제공되지 못하고, 극소수의 민족들은 '문학 러시아어'로 대체해서 수업하는 등 모든 민족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몇 세대가 지나면 자신들의 민족어가 소멸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사역적으로 러시아어만 해도 다게스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질문 2.

60 개가 넘는 민족들은 각자의 민족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다게스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가요? 만약 러시아어가 공용어가 되어 지속해서 민족 언어가 사라지고, 본인들의 정체성과 고유문화가 지속해서 약화된다면 수십년 후에는 이 여러 민족들이 '다게스탄민족'이란 이름으로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역사상 수많은 민족들이 융합, 소멸, 분화 등을 반복해 왔는데 만약 다게스탄인이라는 정체성이 각 고유 민족의 정체성보다 강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중국의 경우 여러 소수민족이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언어와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러시아 정부가 북캅카스 지역 민족에 대해서도 이러한 동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 답변 2.

다게스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게스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다게스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전통과 풍습을 지키며 각각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어느 민족이냐고 물으면 다게스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자신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같은 민족들끼리 만나면 자기 민족어로 소통을 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 청년 중에 자기 민족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기 민족어를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각 민족들의 정체성이 수십년만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경우와 다르게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들이 힘을 길러 러시아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소수민족들끼리 서로 대항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다게스탄의 경우 원래 가장 큰 세력이었던 남부의 레즈긴 민족을 아굴, 루톨, 타바싸란, 짜후르 민족으로 세분화하여 나누고 서북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15 개 종족을 합쳐서 아바르 민족이라 부르며 서로 견제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바르 민족이 다게스탄 민족 구성 비율에서 30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레즈긴 민족은 점차 예전의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바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자 예전에 자신들을 안다, 디도이, 보틀리흐 민족으로 칭하던 민족들이 러시아의 정책대로 아바르 민족으로 자신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질문 3.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식민지배 했을 때 민족 말살정책을 펼치며 한국어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게스탄 민족들은 각 민족의 언어를 아직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배운다면, 러시아는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 그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남겨두고 정치적으로만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다게스탄 민족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순응하고 사나요, 아니면 분리 독립 운동을 하면서 저항하는 분위기도 있나요?

### 답변 3.

관심있게 글을 읽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은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제정 러시아 시대(18 세기-20 세기 초반), 공산 혁명 후 레닌 시대, 스탈린 시대, 고르바초프, 엘찐 시대, 푸틴 시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각 시대별 소수 민족 정책이 달랐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와 스탈린 시대 때는 러시아 동화 정책을 펴서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반면 레닌 시대와 고르바초프, 엘찐 시대는 소수민족 유화정책을 펴습니다. 소수민족별 언어사전이 편찬되고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레닌 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 년대 푸틴이 정권을 잡은 후로는 소수 민족 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급진 세력에 대한 관리 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다게스탄 민족들의 생각은 대체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첸 민족처럼 분리 독립 운동을 하려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다게스탄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 **질문 4.**

북 카프카스의 상황이 매우 흥미롭고 현재의 중동 지역을 볼 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지역에 100 여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민족은 언어,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고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작은 지역 안에 다양한 민족이 살아갑니다. 이들이 한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공용어를 사용하지만 문화와 정체성은 모두 다릅니다. 북 카프카스 사역자로서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는지요? 각각의 민족적 특성-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음 전도의 장벽이 다른 것을 경험하시는지요?

그리고 북 카프카스와 같이 한 국가 내 다양한 민족이 존재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간 선교사는 각각의 민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4.**

관심있게 읽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 카프카스 내 7 개 공화국내에서 각 민족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음 전도의 장벽이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러 연방에 속해 있지만 각 공화국별 또, 공화국 내의 각 민족들의 전통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웃하고 살고 있는 민족들과의 관계와 역사,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와 역사에 따라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도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공화국별로 러시아인이 몇 퍼센트 살고 있는지에 따라 현지인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 년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던 체첸의 경우 전쟁 후 친 러 정권이 들어서서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러시아가 좋고 푸틴 대통령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기독교는 러시아의 종교이고 예수는 러시아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고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아직도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강합니다.

그리고 통계상 대부분 이슬람 수니파라고 하지만 이슬람 전파 역사 가운데 수피즘의 영향을 받아 영적을 체험을 중요시 한다거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내에 다양한 민족을 섬길 때는 지배 민족의 역사 그리고 피지배 민족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이웃하고 있는 민족들과의 관계와 역사, 지배 민족과의 관계와 역사를 고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민족의 영적인 역사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우선수위를 두고 섬겨야 하는 민족을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함께 섬길 자원들을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꾸준하게 섬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섬길 자원들이 풍성해지면 그에 따라 지역을 분배하여 전문적으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질문 5.

조영래 발표자는 몇 개 민족 정도의 친구들이 있는지요?

민족별로 여러 기질과 은사의 차이점을 느끼는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차이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답변 5.

재밌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몇 개 민족 친구와 사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질문받고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락 민족과 아바르 민족 친구가 가장 많고 다른긴, 레즈긴, 쿠목, 따바싸란, 아굴, 디도이, 보틀리흐, 카이탁, 쿠바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게스탄 민족들은 같이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한 민족이 가면 그 민족에 대해 혐담을 합니다.

"아바르 민족은 머리는 명청한데 힘만 쎄, 다른긴 민족은 돈만 밝히고 좋아해, 락 민족은 교활한 민족이야, 레즈긴 민족한테는 내 자식들 시집, 장가 안 보낼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바르 민족은 용맹하고 의리가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긴 민족은 비지니스 감각이 뛰어나서 다른 민족보다 사업 수완이 좋습니다. 락 민족은 지혜로워서 우주비행사,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레즈긴 민족은 다게스탄

다른 민족들에 비해 덜 가부장적이고 남자들도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아내를 잘 도와주는 가정적인 민족입니다.

2010년도에 순교하신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바르 민족이었습니다. 순교하시기전 이슬람 근본주의자로부터 수많은 협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다 무장 괴한에 의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바르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락 민족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뜻이겠지요. 락 민족 친구중에 예수님을 믿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주일예배 메세지, 주중에 했던 성경 공부 내용을 잊지 않고 거의 다 외웁니다. 다음번에 만나서 물어보면 성경구절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락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면 아볼로와 같이 성경 교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기대됩니다.

가정적인 레즈긴 민족은 유쾌하고 부드러운 기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화나는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위트있게 또 재치로 잘 넘어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레즈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면 목자로,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기대됩니다.

## 질문 6.

북 카프카스 민족은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 카프카스 민족 대부분은 이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후엔 다른 종교에 대해선 배타적으로 유지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카프카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북 카프카스 민족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슬람의 종교적 특징과 북 카프카스 민족의 특징이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 답변 6.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 카프카스 민족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무속신앙,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정교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7세기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게스탄 산지 연합군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저항하였습니다.

아랍 군대는 다게스탄 남부지역의 고성인 데르벤티를 점령한후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무슬림 2만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의 포교활동과 세금정책으로 9-10세기부터 남부지역의 귀족들을 시작으로 차츰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3 세기 몽골의 침략, 15 세기 티무르의 침략을 거치면서 이슬람이 여러 민족에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18-19 세기 러시아와 카프카스 전쟁을 하면서 이슬람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40 여년간의 카프카스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서 러시아의 지배가 시작되고 얼마후 일어난 공산 혁명으로 이슬람 역시 많은 성직자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사원들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1994, 1995년 체첸 전쟁을 거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북 카프카스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고 이슬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항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해왔던 북 카프카스 민족의 기질상 아랍의 군대가 통치하려 했을 때 끊임없이 저항하였는데 러시아 제국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 두고 이슬람 종교 중심으로 각 민족이 연대하고 러시아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카프카스 민족 대부분이 이슬람에 정체성을 두고 '우리 민족은 이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습법과 복식의 문양을 보면 기독교적인 법과 가치관, 기독교적인 생활 문양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있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국민 대다수가 정교회 신앙을 갖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 유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이스라엘·중동 정책의 이해

Joseph Kwon (편집위원)

## 1. 서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국익 확대, 경제적 이익,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목표로 외교정책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생존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Webster University Global Policy Horizons Lab, 2023)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 안에서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두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의 생존적 위협, 즉 전쟁, 경제적 붕괴, 정권 전복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존속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외적으로, 생존 자체를 외교정책, 특히 중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왔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가들의 정책과 이스라엘의 정책을 구분 짓는 핵심적인 차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벌어지는 현상만 분석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대 민족이 걸어온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반복된 추방, 박해, 학살,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적 위협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을 형성한 토대가 되었다.

국제관계학의 여러 이론을 고려할 때, 현실주의는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본다. 반면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가 단순히 생존과 국익 확대만이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의존과 국제 제도 속에서의 협력 역시 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구도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책 전반은 국제 제도나 규범보다는 안보와 생존을 우선하며, 필요할 경우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책을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외교적 행보는 국가의 존속이라는 절대 명제를 둘러싼 전략적 선택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이 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예외적으로 보이는 선택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어떤 역사적·실존적 위기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보안정책이 유지되는 이유, 77년간 지속된 예비군 동원 체제, 실제 전장에서 40·50 대 가장들이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전사하는 현실, 외국에서 흘로 이스라엘 군에 자원 입대하는 현상, 테러범을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테러범 가족의 집을 파괴하는 조치가 존재하는 이유, 2023년 10월 7일 알아크사 흥수 작전을 기획한 신와르가 가능한 한 많은 이스라엘 시민을 인질로 잡으려 한 이유와 인질 문제가 갖는 중요성, 이스라엘 방위군(IDF)이라는 명칭과 달리 이스라엘 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이유, 서안지구·가자지구 합병을 둘러싼 이스라엘 내부의 찬반 근거,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제외한 이스라엘 인구의 21%가 아랍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작동하는 이유, 전쟁 중 울려 퍼지는 “암 이스라엘 하이(이스라엘 민족은 살아 있다)”, “베야하드 네나제아(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 “I stand with Israel(나는 이스라엘 편에 선다)”와 같은 구호들이 등장하는 배경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내외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국가의 대외 정책은 국내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는 주로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시민의식은 해당 집단이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했으며,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적용했는지를 통해 형성된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수천 년 간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반유대주의라는 역사적 현실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는 유대인들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인식, 즉 유대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이 살아 있는 한 민족은 생존한다. 그리고 민족의 정신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

본 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토양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이스라엘 사회를 ① 디아스포라-1948년 독립, ② 독립 이후 2020년대까지의 현대 이스라엘 정신, ③ 2020년 이후 내부적 분열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중동에서의 분쟁과 더불어 전 지구적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디아스포라에서 독립까지: 생존을 위한 역사적 여정과 그 가운데 형성된 이스라엘 정신

유대인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은 반유대주의와 생존이다. 유대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기이할 정도로 집요하게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반유대주의에 직면해왔다.

오늘날 하마스가 주장하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에 대한 핵공격 위기감, 중동전쟁, 70 여 년 전 독일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는 물론, 그 이전에도 중세 기독교 유럽의 종교재판, 강제개종, 강제추방, 로마 제국에 의한 제2 성전 파괴와 디아스포라, 더 멀리 올라가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 모압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투쟁, 에서와 야곱의 갈등 등 수많은 사건들이 유대인의 집단 기억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다수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일부는 신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기억들은 반유대주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적 트라우마로 작동해왔다.

수천 년에 걸친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대인의 대응은 단순했다. 바로 생존이었다.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분리를 통한 생존, 동화를 통한 생존, 유대국가설립 투쟁을 통한 생존(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25)

먼저 분리를 통한 생존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이었다. 오늘날 유대교와 유대인의 개념을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유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생존의 열쇠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는 대체로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다. 이는 근대 이전 시대에는 흔한 현상이었으며, 종교적·민족적 구분 속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교류만 유지한 채 정체성을 지켜왔다.

흥미롭게도 유대 민족의 정신을 수천 년 동안 지탱한 것은 공통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었다. 오늘날의 현대 히브리어는 본래 18 세기에 종교적 의례에서만 사용되던 언어를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에 의해 되살린 것이다.(Jewish Virtual Library, n.d.)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것은 랍비들만 가능했다.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안식일에서 찾았다.(Fromm, 1927)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경험하며 궁극적인 희망을 간직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희망은 안식일 준수와 예루살렘이라는 유일무이한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구체화되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메시아가 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은 유대인 정신의 핵심이었다. 우상숭배를 철저히 거부한 유대교는 상징물이나 형상 대신, 안식일과 예루살렘의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시민(citizen)의 개념이다. 이는 나폴레옹 시대 이후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특정 민족과 상관없이 의무(세금, 병역 등)를 다하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이 변화는 유대인 공동체에도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중세에는 분리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동화를 통한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도시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기회 확대는 유대인들에게 사회적 성공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보장받는 유대인들이 등장했고, 이 모델은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며 유럽 전역 유대 공동체에 확산되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이나 문화적 동화를 생존의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동화의 길에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다. 바로 드레퓌스 사건이다. 19 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계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조국 배신 혐의로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드러났지만 군부는 명예를 이유로 은폐했다. 그러나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며 프랑스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드레퓌스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파리 특파원으로 취재하던 유대인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츨은 군중들이 죽어라, 유대인! 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무리 충실한 시민으로 동화되어 살아도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계기로 현대 시오니즘 운동(유대인 국가 건설 운동)을 본격적으로 제창했다.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n.d.)

이후 제 2 차 세계대전과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충격이었다. 동화된 유대인들조차 족보를 추적당해 학살되면서, 헤르츨의 주장이 유일한 해답으로 받아들여졌다. 반유대주의의 근본 원인은 국가 없음이며, 따라서 유대인 스스로 국가를 세워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다. 이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이었다. (Herzl. 1896)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은 국가로 독립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정책 기조는 분명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이 단결과 강력한 힘으로 맞서며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곧 생존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유대인의 정신은 결국 이스라엘 정신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토대가 되었다.

### 3. 1948년 독립이후 이스라엘 국가의 정신적 기조와 전략

초기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이후의 기조는 철저한 현실주의와 무신론적 인본주의에 기반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였다.(Ofek, R. 2018) 2천 년간 이어진 고난과 고통, 특히 홀로코스트라는 민족 전체의 비극과 부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과 연대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모든 것이 실전이었기에 형식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시되었으며, 사회 구성원의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문화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등장했고, 이는 곧 시오니즘 정신을 토대로 한 이스라엘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Cohen. 1998)

독립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여전히 안보와 생존이었다. 제 4 차 중동전쟁, 두 차례의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수많은 군사 작전과 테러, 그리고 최소 10여 차례에 달하는 전면전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야 했다. 홀로코스트 이후 각인된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Never Again)라는 다짐은 이스라엘 정신의 핵심에 깊이 뿌리내렸다.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자유, 자립, 자위권이 강조되었고, “일과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는 현실”은 이스라엘 사회와 군인의 정신교육에도 반영되었다.

이스라엘의 정책은 막연한 낙관주의나 정신 승리가 아닌 철저한 현실주의에 기반했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sup>11</sup>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up>12</sup>는 원칙이 이스라엘 안보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

<sup>11</sup> 네탄야후 총리가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20세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개념을 통용하며 사용된 내용이다.

<sup>12</sup> 고대 로마의 격언으로 이스라엘 뉴스 칼럼 등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다.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성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정보력, 과학기술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이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이어져온 질문과 토론의 문화는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은 과학·기술·철학 등 세계적 수준의 성취로 이어졌다. 이때 말하는 '합의'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적합한 최선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이스라엘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자세가 있다. 이러한 토론 문화는 서로 다른 생각과 스타일을 존중하는 정신과 결합하여 공동체적 연대(아레부트), 즉 "모든 이스라엘은 서로의 보증인"이라는 정신을 형성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가 되어 의무와 권리가 공정하게 적용된다. 이는 "민족의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때문이며, 결국 유대인들만이 최종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식도 여기에 자리한다. 그 외의 존재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오늘은 친구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도 존재한다. (Kremnitzer. 2005)

이러한 시오니즘 기반의 이념은 큰 틀에서 성공적이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국가로 생존했을 뿐 아니라, 그 터전을 확장하며 독립 당시 가난한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를 가진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무리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점차 내면화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 때문이 아니라, 무신론적 기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가적 성장과 확장이 구약의 예언과 맞물려 유대교적 감정과 감격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sup>13</sup>

---

<sup>13</sup> 1967년 6월 전쟁, 중동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동예루살렘을 수복했을 때, 통곡의 벽에 처음 도착한 많은 세속적인 유대인 군인이 통곡의 벽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이스라엘에 세속적 유대인들 조차도 어떤 영적 영감을 주었다.

#### 4. 2020년대 이후 초정통파 유대인과 세속 유대인 간의 내부 정체성 논쟁

이스라엘 내부 정치에서 새로운 변수로 초정통파 유대교 종교인의 성장이 있다. 인구 비율상 초기 이스라엘 독립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종교 유대인의 구성은 5% 미만이었다. 독립 당시 토라 공부에 전념하고 군 복무를 면제받은 초정통파는 400 명에 불과했다. (Shany & Lavi. 2024) 하지만 초정통파 종교인의 출산율이 매우 높아 전체 유대인 사회의 인구 비율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랜 기간 정통 유대인은 이스라엘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인구 수에 비해 높은 혜택을 누려왔다. (Israel Policy Forum. 2024)

오늘날에는 유대인 인구 중 약 20%가 초정통파 유대인이며,<sup>14</sup> 2065년경에는 이러한 추세가 진행된다면 유대인 인구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osenberg. 2020,) 현재 이스라엘 25 대 국회에서 초정통파 대표 정당의 보유 의석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The Times of Israel. 2025) 이제 초정통파 정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이 아닌 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며 국가의 방향을 제안하고 끌어가는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The Times of Israel. 2025)

초정통파 정당의 주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토라(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삶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간단하게 율법 준수를 국가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데, 안식일을 공공적으로 준수하고 유대교 음식법을 강화하며 종교법정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ARZA. 2023) 이들은 토라 학문이 국가의 방패라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기에 이스라엘 군 복무 면제를 고수한다. 반면 정착촌 등에 거주하는 종교인들은 자경단과 같은 자체 무장 그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Leykin. 2024) 이들은 유대 종교적 신념에서 서안지구 합병과 가자지구 합병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며, 성전산에 대한 관할권과 성전 설립에 대한 비전 또한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 (Jewish News Syndicate. 2025)

이러한 초정통파와 세속적인 유대인과의 대립 또한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 내부 변화는 이스라엘 외부 중동 전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sup>14</sup> 2023년 12월 기준 이스라엘 중앙통계국(CBS)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 유대인은 7,208,000명이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연구소(IDI)의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초정통파 인구가 1,390,000명이다. 백분율로 변환시 유대인 인구 중 초정통파 유대인의 비율은 19.3%이다.

## 5. 단기적 향후 전망

이스라엘의 정신은 가장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생존과 유지에 집중한다. 이는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며 확장하는 제국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보여주었던 합리성, 유연성, 혁신성,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과 같은 강점을 추구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국제적 감각을 포함해 제국적 강점을 지니지만, 제국처럼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높은 출산율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정통 종교인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지향점은 기존 이스라엘 사회의 방향과 충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통 종교인들은 신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며, 수학·영어·과학과 같은 세속 과목의 의무 교육에 반대하는 등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고수한다. 더 나아가 종교적 가치를 실제 정치에 적용하며 신정일치적 국가 형태를 추구한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의 합리성, 유연성, 다양성에 대한 포용, 그리고 혁신성은 점차 약화되고, 세속적 유대인 그룹과 종교적 유대인 그룹 간 논쟁은 심화될 것이다. 이 내부적 정체성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상당 부분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가자지구, 서안지구, 예루살렘 성전산을 둘러싼 분쟁적 이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7 월 23 일 의회가 발표한 가자 및 서안지구 합병안은 세속적 유대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라는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Pellman & Novik, 2025). 또한 예루살렘 성전산에 제 3 성전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종교 정치인들에 의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점점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Summers, 2025).

동시에 최근 네탄야후 총리가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정책들은 모두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중동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차원을 넘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행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생존을 넘어 민족적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Ailam, 2025).

전반적으로 유대 종교인들의 강경 우파적 정책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강경 노선을 취한다.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가자지구 합병과 같은 정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현상 유지선(status quo)을 흔들며, 국제 사회에서 반이스라엘 및 반유대주의 정서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반유대주의는 무슬림 이민의 증가로 인해 무슬림 이민자 그룹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좌파 그룹이 연대하며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SNS 를 통해 유포되는 자극적인 이미지와 선동에 대중이 동참하면서,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세계화를 주도하던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집권하거나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반유대주의 정서도 미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반유대주의가 가속된다면, 미국 내 약 750 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sup>15</sup>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로 귀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 내 유대인 가운데 약 87 만 1 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Messianic Jews)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LifeWay Research, 2020), 이들을 제외한 일반 유대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약 이들의 이스라엘로 귀환 혹은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정통 종교인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이스라엘 내부 정체성 혼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지구적 반유대주의의 확산은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도 국제 사회 속 이스라엘 지지 세력의 약화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해석은 점차 분열과 논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중동 아랍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체감할 수 있는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

<sup>15</sup> 미국내 유대인 인구는 통계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Pew Research center(2020 기준)자료에는 미국내 유대인의 인구를 750 만명으로 조사하고, Steinhardt Social Research Institute, Brandeis University (2020 기준)자료에는 760 만명, Jewish Agency (2023 기준)자료는 약 630 만명으로 집계한다. 이 자료에서는 Pew Research center 의 자료를 사용했다.

## 참고문헌

ARZA. (2023, May 14). The harsh reality of Haredi-ism. ARZA. <https://arza.org/the-harsh-reality-of-haredi-ism/>

Ailam, O. (2025, April 9). Why Israel should embrace its role as a regional power. *Jerusalem Center for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JCFA)*. <https://jcfa.org/why-israel-should-embrace-its-role-as-a-regional-power>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n.d.). Theodor Herzl.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Theodor-Herzl>

Cohen, S. (1998). *Religious Zionism*. Rutgers University.

Fromm, E. (1927). The Sabbath. In R. Funk (Ed.), *Fromm online archive*. <https://fromm-online.org/wp-content/uploads/fromm-titles/1927a-eng.pdf>

Herzl, T. (1896). *Der Judenstaat: Versuch einer modernen Lösung der Judenfrage*. M. Breitenstein's Verlags-Buchhandlung.

Israel Policy Forum. (2024, June 25). The Haredi exemption. *Israel Policy Forum*. <https://israelpolicyforum.org/2024/06/25/the-haredi-exemption>

Jewish News Syndicate. (2025, August 27). More than 54,000 Jews visited Temple Mount in 2025. *JNS.org*. <https://www.jns.org/over-54000-jews-visited-temple-mount-in-2025/>

Jewish Virtual Library. (n.d.). Eliezer Ben-Yehuda and the revival of Hebrew.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eliezer-ben-yehuda-and-the-revival-of-hebrew>

Kremnitzer, M. (2005). The concept of 'arevut' in Israeli law and society. *Tel Aviv University Law Review*, 28(2), 123–145.

Leykin, S. I. (2024). The battle over the enlistment of ultra-Orthodox Jews in Israel. *Ital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https://www.ispionline.it/en/publication/the-battle-over-the-enlistment-of-ultra-orthodox-jews-in-israel-181717>

LifeWay Research, & Chosen People Ministries. (2018). *Evangelical attitudes toward Israel and the peace process: Jewish-ancestry Christians in America*.

Ofek, R. (2018). The "new Jew" of Zionist education: Constructing a secular Jewish identity in early twentieth-century Palestine. *University of Chicago*.

Pellman, A., & Novik, N. (2025, August 23). The cost of "Greater Israel": How messianic ideas are betraying Zionism. *The Jerusalem Post*. <https://www.jpost.com/opinion/article-865069>

Rosenberg, D. (2020, November 11). Study: Israel's Haredi population to rise to 6.5 million by 2065. *Israel National News*. <https://www.israelnationalnews.com/news/291029>

Shany, Y., & Lavi, M. (2024, March 7). Development of the Haredi exemption law. *Israel Democracy Institute*. <https://en.idi.org.il/articles/53301>

Summers, C. (2025, August 3). In first, Ben Gvir openly leads prayers on Temple Mount, in violation of status quo. *The Times of Israel*. <https://www.timesofisrael.com/in-first-ben-gvir-openly-leads-prayers-on-temple-mount-in-violation-of-status-quo/>

The Times of Israel. (2025, June 12). After compromise, Haredi parties back off threat to dissolve Knesset. *The Times of Israel*. <https://www.timesofisrael.com/after-compromise-haredi-parties-back-off-threat-to-dissolve-knesset/>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25, January 2). Jewish responses to antisemitism in the decades before the Holocaust. In *Holocaust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article/jewish-responses-to-antisemitism-in-the-decades-before-the-holocaust>

Webster University Global Policy Horizons Lab. (2023). *Understanding Israel's foreign policy* [PDF]. <https://dev25.webster.edu/documents/global-policy-research-lab/2024-understanding-israel-foreign-policy-ua.pdf>

## 질의응답

### 질문 1.

초정통파 유대인과 세속 유대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요?

세속 유대인들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팔레스타인을 억누른다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흡수하려 한다면 결국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닌가요?

### 답변 1.

좋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다양한 관점의 스펙트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의회의 구성입니다.

이스라엘 의회에는 극좌파, 좌파, 중도, 우파, 극우파 정당들이 공존합니다.

좌파의 기준 입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입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좌파 성향의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해 왔기에, 가자지구에서 정착촌을 완전히 철수하고, 가자지구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가자 주민들 가운데 노동 허가증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우파의 정책 또한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존을 전제로 하지만,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안지구 정착촌 추가 건설과 같은 정책입니다. 다만 이 역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오랜 기간 유지된 이유는, 2005년 제 2 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이후 이스라엘 사회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되 극단주의자들은 통제하고, 온건한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팔레스타인 경제도 발전시켜 극단적인 행동을 억제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 사회에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가자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많은 키부츠들의 경우, 팔레스타인(가자)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이상을 추구하던 좌파 성향의 공동체와 평화운동가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통 종교인들의 수가 계속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이스라엘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이 전체의 15%에 달하면서, 단순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서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우파 정당과 연합하여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통 종교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무신론자들이 세운 국가이므로 하나님은 세운 것이 아니며, 다른 이방 국가와 동일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참여하더라도 주로 종교 교육이나 사회적 혜택과 같은 실질적 요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국가적 사안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통 종교인들의 팔레스타인 문제 접근은 유대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생존 논리’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안지구 완전 장악은 기존의 이스라엘 생존 전략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고, 성전산에 제3 성전을 건설하자는 주장 역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통 종교인들은 이러한 정책을 신앙적 이유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기존의 이스라엘 생존 중심 정책과 정통 종교인들의 종교적 배경이 섞인 정책의 차이점입니다.

## 질문 2.

과연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아 왔을까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는 생존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둡니다. 평상시에는 경제 성장,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교류, 국제 규범 준수 등을 추구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존속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때로는 생존을 위협받을지라도 지키려 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시오니즘적 이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1903년 영국 총리 체임벌린이 제안한 이른바 ‘우간다 계획’입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아프리카 식민지(실제로는 케냐 지역) 일부에 유대 국가를 세우자는 제안은 생존 차원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생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대 가나안 땅에서 국가 건설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생존을 추구했다면 아프리카에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홀로코스트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가 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무력 도발을 쉽게 감행하기 어렵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억지력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국가 해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생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히브리대학교 아리에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과 시오니즘적 이상을 생존보다 더 앞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또한 현대 정치의 방향은 단순히 시민의식만이 아니라 정당과 지도자의 성격에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도 행정부마다 성격이 다르듯, 한국 역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현재의 정책이 유대인의 시민의식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차기 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정당이나 지도자가 교체되면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민족적 가치, 즉 시오니즘적 이상을 지켜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체성이 현대 정치에 항상 일관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 지도자와 정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의 중동정책을 이해하는데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2.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 속에 유대교를 근간으로 한 가치와 이상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기 이스라엘을 건국한 리더들 가운데는 무신론자, 이신론자, 유신론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했으며, 철저한 무신론자조차도 민족의 구심점을 위해 유대교적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통 종교인들의 군복무 면제 정책도, 사실은 초기 건국 당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민족국가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취하는 보편적 특징이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국가는 정체성을 위해 '민족 신화'를 각색하여 유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구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철저한 무신론자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의 예언들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며, 그 근거로 구약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민족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약을 민족적 기초로 삼는 이스라엘의 민족 정책은 단순한 인간의 합리성 위에 성경적 가치를 더하며, 그로 인해 강력한 가치적 확신을 드러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통 종교인들의 제 3 성전 건립이나 서안 지구 합병과 같은 주장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 성취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혼란과 불완전한 현실 위에도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